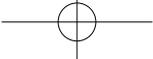


My Future, My Business

이주여성 소상공인의 일과 삶



Supported by
J.P.Morgan



이 책에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엄마로, 사업가로 살아가는
이주여성 15인의 일과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지원한 한국여성재단의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III >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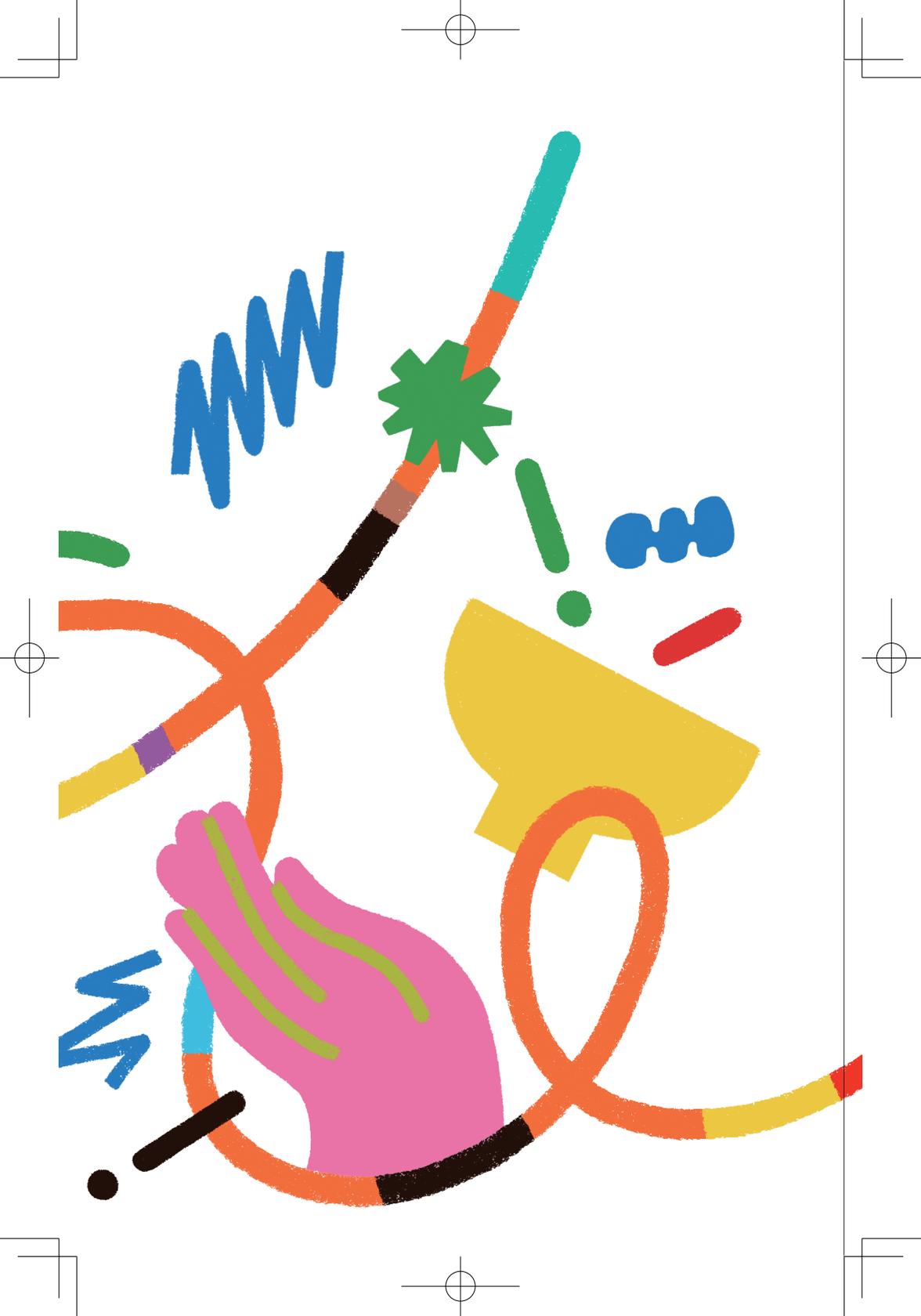
목차

인터뷰

6	금화헤어샵	전금화
14	다모의료안문화관광협동조합	
24	다이아몬드뷰티헤어	김정아
34	미스포	배연
46	시골손두부의 하루	조영
58	아이스미피부관리샵	왕구완준
68	아프리카	크리스티나
78	연변양꼬치	최매화
88	원어민해법중국어학원	리춘지아
96	윤하헤어샵	김윤하
104	젤라또 팩토리	이명림
114	큰나무사천취귀양꼬치	류위옌
124	한사랑컬처	왕지연
138	협동조합 글로벌에듀	
150	홍옌중국어교습소	잔홍옌

지원사업 소개

162	사업 소개
170	한국여성재단, JP모간 소개



인터뷰





금화헤어샵

전금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원로1053번길 39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금화헤어샵의 전금화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손으로 만드는 재주가 좋았고 특히 미용사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한국에 와서 미용학원, 보조강사, 관련 대학교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건 헤어샵을 열었다. 고객의 아름다움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는 오늘도 가게 문을 활짝 열었다.

홍성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9년 되었죠. 2003년 3월부터 살았어요. 그때가 서른한 살이었고요. 중국 하얼빈에서 멀지 않은 경박호 쪽에서 살다가 결혼으로 홍성에 오게 되었죠.

어려서부터 미용에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저는 남의 머리를 만지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애들 머리도 잘 따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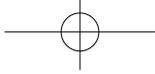
그러면 한국 오기 전부터 중국에서도 미용 일을 할 생각이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선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때 제가 몸이 좀 허약했는데, 미용 일 하면 파마약 쓰고 머리카락 날리고 하니까 몸에 좋지 않잖아요. 한국에 와서는 엄마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 바로 했지요.

직접 운영하는 헤어샵을 열고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학원에 다니거나 보조 강사를 할 때는 몰랐는데, 제 가게, 제 사업이다 보니까 일대일로 손님을 상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손님 들어오셨을 때 인사는 물론이고, 무슨 말을 먼저 건네야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서 여러모로 어려웠어요.

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지금 그나마 많이 활발해진 거예요. 아는 친구는 정말 말을 너무 재미있게 잘하는데, '왜 나는 재처럼 저렇게 하지 못하나' 싶고. 그런데



그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원사업 통해 받은 컨설팅에서는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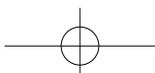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미리 적어보는 건 어떨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컨설팅 선생님이 어제 오셔서 제가 손님맞이
하는 걸 뒤에 앉아서 지켜보셨거든요. 손님 가신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해도 되는 게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이
있다” 얘기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손님이 면접도 봐야
해서 머리하신다고 하기에, 제가 “그래서 취직은 어떻게
되셨어요?”라고 물었는데, 그게 상대에게는 실례가 되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었다고요.

손님이랑 말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 너무
조용해져서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은 말이 많은 손님입니다.

어떻게 이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나요?

일하기 전에 복지관을 많이 이용했어요. 거기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중 한 친구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지금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마감이
언제까지이니 빨리 신청해’ 라고요. 그래서 서류 준비해서
일단 신청했어요. 그런데 딱 붙은 거예요. 친구한테 정말
고맙죠. 그래서 한턱 냈어요.

미용은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갑자기 손님이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배우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새로운 머리스타일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죠.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서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아요. 한국 미용 콘텐츠 찾아보면서 엄청나게 공부해요.

단골손님도 많으세요?

고정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홍성은 인구가 적어요. 그에 비해 미용실은 많고요. 사람마다 각자 다 가고 싶은 데 가겠죠. 물론, 우리 가족 머리는 다 제가 해요.

헤어샵 운영하시면서 어느 순간 제일 뿌듯하세요?

손님 머리작품이 딱 끝나서 완성된 순간, 고객도 만족하시고 저도 만족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그 손님이 가게 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쳐다봐요. 요즘 들어 그런 순간이 자주 있어요. 손님들도 느끼세요. 제가 머리해드릴 때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든대요. 정말 제가 매우 정성 들여 하거든요. 손님 한 분이 오셔서 머리하실 때는 다른 손님은 받지 않아요. 한 손님한테 몰두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뒤에 오신 손님이 ‘왜 보내냐, 번갈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둘을 동시에 하면 타이밍이 애매해요. 파마약 한 분을 잠시라도 방치하면 안 되고요. 저는 한 분께 서비스를 몰아 드려요. 재료도 아끼지 않고 쓰고요.

금화헤어샵을 연 뒤 느낀 보람은 어떤 걸까요?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이 미용실은 제가 이룬 성과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좋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나요?

고등학교 딸 아이가 자퇴하고 알바하거든요. 새벽에 알바하러 가고, 알바한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제과제빵을 위해 학원비를 내며 혼자 알아서 해요. 학원도 서울과 대전 두 개나 다니고요. 본인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랑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 일이 끝나는 오후 2시에는 여기 가게로 와요. 그즈음엔 저도 딸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같이 나누는 대화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손님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요. 엄마랑 아빠한테 부담을 안 준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게 정말 기특해요.

김혜이님

딸 셋을 돌보는 엄마 역할도 하고, 동시에 일도 성실히 하시며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엄마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부터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바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대학교도 다녀야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되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안쓰럽죠. 지금도 그래요. 저는 거의 여기 가게에 있다 보니 애들이 직접 밥을 해 먹어야 하잖아요. 남편은 애들 자립심을 키워줘야 한다고 항상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딸들도

전민화



이제 좀 커서 소통이 다 되니까 이해를 많이 해줘요.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돌이켜보면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의 만족이
제일 커요. 우리 큰 딸 하는 말이 “엄마,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번다는 건 사치야. 그니까 엄마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삶에서 앞으로 기대하는 건 뭡까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제 미용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고객님들 더 만족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제일이에요.

인생의 모토가 있나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근황에어상

전극화



다모의료앤 문화관광 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88번길 7

모이면 서로 힘이 되고, 배움이 있고, 지속가능한 일을 할 수 있기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이주여성들이 연대하였다. 사회와 가정의 일원으로서 의료관광 사업, 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펼치며 활발히 활동해온 다모의료앤문화관광협동조합은 성남시 거주 외국인이 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문화와 소질을 살려 새로운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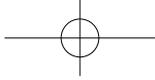
협동조합을 대표해서 인터뷰이가 되어주셨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모의료엔문화관광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있는 이라입니다.

다모의료엔문화관광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협동조합 설립 전에는 문화 사업 관련 일을 하는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원에서 행사 있다 하면 거기서 다 만나고, 이번엔 성남이다 하면 또 거기서 다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요. 일은 개별적으로 하면서 서로를 ‘미얀마 언니’ ‘태국 언니’ 이렇게 부르면서 익히 알고 지낸 이주여성 모임이 크고 작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2014년부터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공고가 나오는 걸 항상 봐왔어요. 취약계층 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는 선뜻 신청하진 못했죠. 우리끼리는 가끔이라도 만나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곤 했는데, 다들 엄마이니까 막상 나가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에서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엄마들이 있기에, 그 제품들을 판매하면 소득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페이스북에 그룹 페이지를 만들어 막 시작하려던 차에 또 한 번 여성재단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더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팀을 만들었고, 2015년도에 사업 신청하고, 그해 1년 내내 교육을 받은 다음 2016년 4월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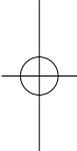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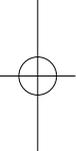
협동조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처음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죠. 조직적인 회사 같은 것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정도였는데, 관련 교육을 받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2015년에 협동조합에 대해 교육을 해주신 한국 분이 계신데 지금은 우리 조합원으로 있으세요. 그분은 원래 수많은 협동조합 심사를 하는 분이셨는데 우리 조합에 들어오신 걸 보면 아마도 이 조합에 기대할 만한 미래가 있다는 거겠죠?(웃음)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셨고

다모의료엔문화관광협동조합은 어떤 계기로 이번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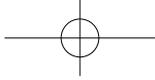
처음에는 교육, 문화 사업이 주를 이뤘어요. 조합원이 다문화 강사도 하고, 공연도 했지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도 했고요. 저희는 크게 공연팀과 강사팀이 있는데, 공연팀은 일주일에 두세 번, 두 시간 정도씩 연습을 해야 무대에 나갈 수 있어요. 춤, 노래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각 나라의 춤을 간단히 배워서 의상을 입고 문화를 소개하는 식의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차 정도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버는 돈은 없는데, 연습은 꾸준히 시간을 내서 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요. 그러던 와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고 지원금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소득이 생겨 멤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던 중 마침 2019년도에 성남 시청에서 의료관광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왔어요. 멤버 중에도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해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가도 받아 열심히 하려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만 새로운 사업이니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싶었죠. 그때 또 여성재단 지원사업 공고가 떴고, 어차피 코로나 시기이니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일에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 인터뷰를 준비하며 한국여성재단 지원서를 봤는데 꼼꼼하고 명확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한두 번 써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 경우 2007년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다가, 2010년에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외국인으로서 최초였어요. 그렇게 4년 동안의 정치 활동이 저에게는 여러모로 굉장한 훈련이 되었어요. 정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원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알게 되었죠. 의원직을 하는 동안은 제가 사업을 심사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보는 거랑 쓰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상대가 우리 사업 자료를 받아서 읽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고 목적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서 쓸 때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지원받으신 후에 식당을 여셨어요. 이 업종을 선택한 계기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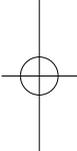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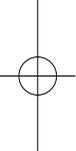
우리가 하는 문화 사업 프로그램이 모두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것 같았어요. 의료 관광 사업도 외국인에게 홍보를 해야 하니까 이 역시 공간이 필요하다 느껴서 처음에는 커피숍 정도를 생각했죠. 코로나도 있고 하니 내년으로 미뤄볼까도 했는데 계속 위치, 월세, 보증금 등 여러 조건을 보면서 공간을 보러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여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식당 ‘우구데이’에서는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몽골 음식과 태국 음식, 두 가지 합니다. 요리는 태국 출신의 이주여성 한 분이 해요. 몽골 현지의 요리사로부터 레서피와 조리법을 전수 받았어요. 요리사 분이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를 워낙 잘하세요. 저는 밥도 잘할 줄 모르는데, 잘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다른 나라 음식임에도 맛을 낼 줄 아셨어요. 다행히 식사하는 손님들이 남기지 않고요. 저희는 음식쓰레기가 안 나오면 ‘아, 음식이 잘 된 거다’라고 생각해요.

식당을 운영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해보시니 어떠세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작은 기업이지만 저 혼자 투자한 게 아니라 멤버들과 같이 투자했고, 연말 정산도 다가오는데 계좌는 바닥이 났거든요. 버는 건 없고, 있는 돈은 사업에



모두 넣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척하면서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웃음)

이번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느낀 점, 새로이 배운 점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재정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다음으로 이 사업을 할지 말지 따져 본 뒤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저희는 항상 ‘일단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야기하고 예산을 이야기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뭐는 얼마 얼마 들 테고, 그러니 얼마를 벌어야 한다’라며 바로 운영 비용부터 딱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다른 데서 사업 따와서 할 때도 먼저 돈부터 이야기하고 계산을 해봐요. 할 수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예산을 따져보는 걸 먼저 하는 식으로 바뀐 거죠.

또 다른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나요?

저희가 고민이 좀 많았는데 컨설팅 선생님의 상담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초기에 임대할 공간 알아보느라 저희끼리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 찍고, 지도 앱으로 원하는 위치를 컨설팅 선생님께 보내면, ‘저건 아니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저희 위치도 주변이 다 식당이고 변화한 거리이다 보니 2층이긴 하지만 지하보다는 낫고, 1층은 또 권리금까지 내야 하니 저희 조건으로는 이곳이 식당 하기 좋다고 판단해 주셨죠.

컨설팅 받기 전에는 공간도 없을 때군요?

올해는 아예 하지 말자는 생각도 했거든요. 지원금을 홍보비로만 쓰고 마무리할까도 했죠. 하지만 저희에게 10, 20만 원도 귀하다 보니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공간도 구하고 뭐라도 해보자 했어요.

지금 이 식당 자리가 그전에는 전통주점이라 내부가 황토색 분위기였어요. 인테리어에 크게 투자할 수는 없어서 일단 깔끔하게 보이면 될 테니 저희가 직접 하얗게 칠했고요. 전기, 가스 관련 일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불러야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부딪치는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죠.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문화가 다른 여성들이 모여 일하고 있어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공통언어는 한국어예요. 한국어로 소통하죠.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주고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함께 한 지 오래 되다 보니 이제는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죠.

각자 나라의 콘텐츠로 공연도 하는 문화 사업을 하다 보니 서로 교류할 기회가 많았어요. 같이 몽골 춤, 태국 춤도 연습했죠. 음악이나 동작 자체도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 나라의 기후, 환경, 생활 문화가 그대로 춤에 녹아들어 있다는 게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보여주는 콘텐츠만으로는 사람들과의 교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활문화 플랫폼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같이 토크쇼와 같은 모임을 운영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저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예를 들어, ‘몽골 여행 가고 싶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임’이라고 하면, 와서 “여행 갈 때 뭐 준비해갈까요?” “뭘 주의할까요?”, “언제 가면 좋아요?” “어디를 꼭 가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여성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다 보면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잖아요. 이주여성분들 중에는 특히나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주여성은 이주하는 순간부터 경력이 단절돼요. 이전에 아무리 좋은 경력,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해도 여기서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까지 낳으면 아무래도 단절의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죠.

한국에 사신 지 17년 되셨어요. 이제 막 이주한 여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 요즘 오시는 분들이 진짜 부럽기도 해요.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무료로 시켜주고, 결혼 초기에 신청할 수 있는 방문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교육도 해 주잖아요. 교육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여성인력센터에서는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증명사진까지 찍어주고, 전반적으로 컨설팅도 해줘요. 우리 때는 진짜 맨땅에 헤딩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공해주는 것이

많고 제도적으로 많이 자리 잡아 있는 걸 봐서,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는 데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개인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뭐 하는지,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지 어렵지 않게 찾아서 배우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쉬운 과정이 아니고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무언가 하고 싶다면 관련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일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자리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면 저희도 어디에선가 각자 일하고 있지 협동조합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도 여기서 대학교, 대학원도 다니고 10년 넘게 학교 문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취업 문턱이 높았으니까요. 취업이 어려우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다이아몬드 뷰티헤어

김정아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8길 34 동성테크빌 2층

몽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이름도 얻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그사이 세 아이의 엄마까지 된
다이아몬드뷰티헤어의 김정아 대표는 누군가를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가꿔주는 과정에서 보람과 기쁨을 듬뿍
느끼며 16년째 일하고 있다. 여전히 배움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 중인 그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국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2001년 9월에 왔으니, 이제 20년 되었네요. 그때가 스물일곱 살이었어요. 몽골에서 대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왔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대학 졸업 후 한국에 다시 왔을 때가 9월이었죠. 한국 안 왔으면 대학 졸업하고 전기 엔지니어나 IT 계열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결혼하고 왔으니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여자가 전기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냐’는 분위기였고 어딜 가든 관련 업종엔 남자만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어도 모르니까 누가 나를 쓰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어요. 그러다 한국 온 지 2년 차에 임신해서 딸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일하기 더욱더 어려웠고요. 그때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뭘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했어요. 한국 어른들은 ‘아이 돌보는 게 돈 버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의 일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아이들이 돌 때 몽골에 갔어요. 남편만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몽골의 시골에 가서 살았는데, 그곳엔 화장품 방문판매가 막 시작할 때라 운전 학원도 다니면서 미용학원도 등록하고 피부 관리도 같이 배웠어요. 친정에 애들 맡기고 울란바토르에서 화장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자격증도 따서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피부 관리를 방문으로 하는 분으로부터 마사지를 배운 것도 그때 시작했어요. 당사가 2005년이었는데 남편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저는 용돈 받아서 살던 때예요. 나는 외국인 며느리이니까 음식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좀 배울 때까지 7년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닌데’ 싶은 생각도 들었죠. 없는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마사지 배우고, 화장품 살 돈을 마련해야 하니 주변에서 애들이 아직 어리다고 해도 세 살 때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래야 애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나도 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 차를 타고 출근해서 마트에서 두 달 일해서 번 돈으로 화장품 사서 마사지 배우러 다녔어요.

그런데 2008년에 미용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가게를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피부관리 실기는 세 번째에 붙었고 필기시험은 여섯 번째에 붙었어요. 그 사이에 셋째 임신을 해서 출산도 했고요. 아기들이 순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고 그랬어요. 남편이 보태줄 테니 헤어미용을 배워보라 해서 필기는 한두 번에 붙었는데 실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도전하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 번 시험 봐서 붙었어요. 딱 1년 걸렸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나요?

나는 포기하면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도 하는 데 내가 왜 못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보는 거죠. 주변에 시험 떨어졌다고 말하는 건 너무 싫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결과 나오는 날까지 1년이 걸렸어요.

처음 가게를 차린 게 언제죠?

피부 관련 일은 계속해왔어요. 2013년에 미용 일을 하는 아는 언니가 본인 사업장 옆에 안 쓰는 피부 관리실을 월세 내고 쓸 수 있대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곳이 아파트 재개발로 없어지면서 저도 접게 된 거죠. 셋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낮에 데리고 다니면 아직 2, 3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아기가 너무 피곤해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남편과 상의해서 갓난애여도 어린이집으로 보냈어요. 그 어린이집 위층에 가게 자리를 구해 마사지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사업자 내고 ‘다이아몬드 피부 관리’라고 이름을 걸고 시작했죠. 손님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었지만, 거기서 2, 3년 정도 내 사업을 본격 시작한 셈이에요.

첫 사업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한국 사람 같으면 돈 좀 들여 인테리어를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싶어요. 남편에게 얘기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어를 못 하는 외국인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거기서 3년 있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손님이 줄었어요. 마사지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2013부터 2016년까지 그랬어요.

그 당시 지금 사는 아파트 입주 날을 앞두고 있었는데, 살던 집에서는 나가야 하고 애들도 학교 다녀야 하니까 6개월 동안 피부 관리실에서 살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태로 일을 하기도 싫고, 쉬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일의 한동안 접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꿈꿔온 일의 목표가 있나요?

처음에 피부관리 시작했을 때 타인을 예쁘게 해주는 일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마사지만 하는 게 아쉬웠어요. 그때 꿈이 생겨난 거죠. 마사지 받은 손님은 머리가 엉망이 되는데, 내가 바로 머리 손질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마사지로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님을 아름답게 해주고 싶었어요. 마사지하고 메이크업하고 헤어도 하고, 눈썹이 부족하면 반영구 문신도 하고, 속눈썹도 연장해주고 거기에 네일아트까지 하면 그 사람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손님의 기분도 좋고, 나 역시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이렇게 16년 동안 하고 있어요.

대표님의 꾸준함과 실천력이 좋은 밑바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욕심이 많은 거 같아요. 배우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항상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는 거죠. 피부, 헤어 관련 자격증이 있고요. 반영구, 속눈썹, 네일아트, 왁싱은 수료증이 있어요. 작년에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 지원이 있었는데, 작지만 그런 교육 기회들이 많았어요.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원장이 알려주면 참여해요. 그럼 실력이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요. 내가 많이 배운 것들을 손님에게도 직접 느껴보게 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으신가 봐요.

한국은 어디 가서 무얼 배우던지 기초부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라 좋아요. 물론 나는 외국인이라 이해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가서 듣고 배우면 재미있어요. 못 알아들어도 눈치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집에 있기보단 일단 나가서 경험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중에 움직이는데, 나는 먼저 벌려놓고 그걸 완벽할 때까지 만들어놓는 편이에요.

상호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은 보석처럼 그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물과 불에도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매력으로 자신감을 느끼길 원하시는 거 같아요.

사람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예뻐야 하잖아요. 내적인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외모는 조금만 꾸미면 돼요. 사람이 예뻐지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3개월에 걸쳐 관리해줘서 피부나 머릿결이 좋아지면 하루 날을 정해서 완벽하게 꾸미고 자기 옷 중에

가장 예쁜 것 입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걸 액자에 담아 선물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꿈도 껴본답니다.

몽골에 체인점을 열고 싶다는 꿈도 키우고 계신 거로 알아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되면 몽골에서 열기 쉬워요. 내가 한국에서 만들어 성공한 케이스니까 거기 가서 하면 인기가 많겠죠.

여성재단의 이 지원사업에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두 번이나 선정되었어요.

2018년 인터뷰에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뽑힌 것 같아요. 나는 뭘 해도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요.

‘제2의 김정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뷰티 업종을 선택한 건 제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화가나 가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잡아서 하다 보면 다음 단계가 보이겠죠. 나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무언가가 될 거예요. 제 입장을 본 사람으로부터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내가 한 노력을 알아봐 주어 좋아요.

처음 한국 와서는 아는 사람도, 대화할 사람도 없어 3년은 외로워 울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음식도 안 맛있고요. 힘든 걸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요. 누구든 대접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남을 너무 많이 도와주니까 딸들은 그만하래요. 차라리 민박집을 차리라 하더라고요. 나도 요즘엔 생각을 바꿔서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쳤으면 하나요?

‘김정아’라는 이름을 남편이 지어줬는데요. 몽골 이름은 사람들이 부르기 불편하니까 뜻도 모른 채 쓰기 시작했어요. 이름에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서 뷰티 쪽 일을 하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원래는 남자들이 많이 하는 전공을 했고, 몽골에서는 제가 말 앓고 있으면 약간 무서운 이미지라는 말을 좀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칼칼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이름 바꾸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미용 일을 하다 보니 여성스럽게 바뀌었나 봐요. 아름답고, 부드럽고, 마음도 편해지는. 다른 이들도 저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각자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건 버려진 강아지 같은 거잖아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재단에 항상 고마워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니 좋고 고맙죠. 믿을 구석이

생기니까 큰소리도 낼 수 있고요. 전문가도 붙여주고, 사업
잘되게 도와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다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요.

다이아몬드뷰티케어

김정아



미스포

배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탐바위길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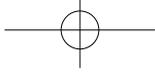
엄마, 동생, 아이를 삶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둔 미스포의 대표 배연. 가게 운영은 물론, 자신을 돌보고 또 가족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사소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간다. 다른 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꿈으로 품은 그는 오늘도 손님에게 맛있는 쌀국수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놓는다.

처음에 어떻게 음식점을 열기로 마음먹으신 건지 궁금해요.

아이도 키우고, 엄마와 동생도 책임져야 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은 수익이 크지 않아요.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홍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할 줄 알아서 한 건 아니었어요. 뭘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가족이 잘 도와주었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았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어요?

다 어려웠어요. 처음에 사업자를 어떻게 내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각종 서류, 가게 인테리어, 고객 응대도 쉬운 게 하나 없었어요.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도요. 내가 해서 먹는 것과 많은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맛이 별로였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떤 때는 싱겁고,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기름이 너무 많았거든요. 면도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불어서 젓가락으로 집을 수 없을 정도인 날도 있었어요. 처음 오픈 3개월에는 손님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별로 없었죠. ‘왜 없을까, 음식을 왜 남길까?’ 고민했죠.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오늘 음식이 좀 짜네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짠 거야? 이거 사람 먹으라고 하는 거야?”라고 말했죠. 상처를 좀 받기는 해도 이게 다 경험이었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맛있게 먹으려고 왔는데 음식이 짜면 기분이 별로잖아요. 그렇게 처음 1년 동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갔고, 2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3년째잖아요. 더 나아졌어요.



미스포 개업 후 첫 손님 기억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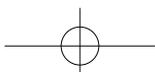
개업한 직후엔 제가 주방에 있어서 처음엔 손님을 아예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친구들을 주방에 부르기도 했으니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 난리가 났죠. 그냥 전쟁터인 거예요. 주문 들어왔는데 저는 주방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음식도 못 나르고, 맛도 별로고, 정말 정신없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반말하는 손님도 있었고요. 이제는 좋은 손님도 여럿 있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서너 번 오시는데 먹고 싶어서 못 참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항상 맛있게 드시고 면 추가해서 드세요. 나갈 때 늘 좋은 얘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오늘은 이래서 저래서 좀 그렇다며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얘기를해주세요. 제가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을 하나하나 맛을 볼 수 없는데 그런 말은 많은 도움이 되죠. 몰랐으니까요.

미스포

이주여성분들이 한국에 오면 본인 나라의 음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미스포만의 특색이라면 무엇일까요?

제 자량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저를 예뻐해 주세요. 젊은 베트남 사람이 쌀국수 맛있게 하고, 가게에서 베트남 분위기가 나고 깔끔하다고요. 일하는 사람들 다 베트남 사람이니까 가게에서 베트남어를 쓰고 있어요. 음악도 베트남 음악이고요. 손님이 여기 있을 때 진짜 베트남이구나 느끼실 수도 있겠죠. 컨셉이에요.

북요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가난해서 한국에 시집와서 살고 있다는 이미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와서 나름 노력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외국인이라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게 창피하진 않았어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좀 모르는구나’ ‘외국에 안 나가봤구나’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동생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하는 건 어떠세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가끔은 ‘내가 왜 이려고 있나, 그냥 다 접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가족이랑 일하면서 갈등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갈등이 생겨요. 특히 제가 오너니까 언니와 동생 사이일 때는 재밌게 노는데, 같이 일할 때는 일과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되죠. 지시적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로 내가 주장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재가 또 이래라저래라하네’ 생각하시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톤을 높이면 상처받으시죠. 예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가족과 함께 일하면 편해요. 믿고 다 맡겨도 되고요. 그래 봐야 가족이니까 싸워도

금방 괜찮아지고 다 용서가 돼요.

아이가 어린데 엄마 식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이는 엄마가 뭐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어디 가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고 엄마가 어디에서 쌀국수집 한다고 얘기해요. 홍보대사예요. 여기 쌀국수도 잘 먹어요. 아이가 엄청나게 좋아해요. 맛있네요. 한동안 질려서 안 먹다가도 또다시 찾아요.

미소
표

인생에서 힘들고 괴로웠던 나날은 어떻게 헤쳐나갔나요?

가장 큰 일은 아마도 아기 아빠와 이혼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가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둘이 한집에 사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제게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물어봐 봤다면 좋았을 텐데 저를 전혀 이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대화도 안 되었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되든 안 되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대화 자체를 잘 하지 않게 됐어요. 남편은 생활비도 안 줬어요. 기저귀 떨어지거나 살림하다 뭐가 망가지면 내가 말을 꺼내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내가 나가 일해서 번 돈으로 샀죠. 그리고 제가 뭘 하든 다 싫어했어요. 그나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닐 때 기술을 배울 수 있었죠. 내가 알아서 배웠던 거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모든 걸 혼자 하는 느낌이었어요.

부
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혼하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때는 뭘 먹어도 가슴이 막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극복하더라고요. 이혼 직후 애 아빠가 아기 키우겠다고 양육권 가져갔다가 한 달도 안 되어서 아기를 제게 보냈어요. 그때 저는 월세방에 살 때였죠. 위자료도 못 받으면서 한 달에 양육비 30만 원 주는 거로 살았고요. 지금은 아이를 제가 키워요. 남편은 양육비도 주지 않아요. 주말에 가끔 애 데리고 가서 옷 사주고, 생일 때 몇십만 원 챙겨주는 게 다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혼하길 참 잘했다 싶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지금도 그 사람이랑 살았으면 나는 그냥 촌에 살면서 돈도 없고 많은 것도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죠. 물론 살면서 저도 잘못된 게 있겠지만, 서로 안 맞고 못 맞추면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쪽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스물다섯 살 때쯤엔 예쁜 나이였지만 그땐 세상을 잘 몰랐어요. 서른쯤 되면서 조금 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한 거 같아요. 지금 제 나이에 비해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돌아보면 뭘 많이 했더라고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았고, 장사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생활도 나름대로 경험해봤고요.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아직도 너무 예쁜 나이야. 지금 뭘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서른셋인데 곧 마흔이 되니 뭘가 할 수 있을 때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헬스를 다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월요일은 어디
놀러 가는 날이에요. 아이와 맛있는 거 같이 먹고 SNS에 사진
올리고 그래요.

미소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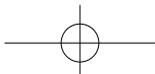
취미 생활도 하시나요?

중국어, 영어, 피아노, 골프를 해요. 골프는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의 운동이지만 그냥 배워 놓으려고요.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언어는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중국어는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배우고 있고요. 피아노는 어릴 때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워서 하고 있어요. 몇 개월 됐는데 진도는 잘
안 나가요. 그래도 연주를 하면 마음이 진정되는 거 같아요.
피아노에만 집중하니까요. 배우는 과정이 힘들긴 하고 사실
선생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들어요. 도레미 이런 계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걸요.

행복을 주로 어디서 얻나요?

살면서 작은 행복은 많아요. 가장 큰 행복은 뭔지
모르겠지만요. 아이랑 있어서 재밌고요, 나 혼자 여행 갈 때도
좋고, 엄마랑 동생이랑 장난할 때 재밌고 행복해요. 사소한
것들이죠. 큰 슬픔도 큰 행복도 없으니 좋아요. 돈 많이
벌어서 럭셔리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작은 행복이 많아요.
그게 쌓이면 큰 행복이 돼요.

복
요



일과 육아에서 다 해방이 되면 그 이후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별장 짓고 텃밭 하나에 강아지 키우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곳 홍천이 좋아요. 익숙하고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별장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아기자기한 집을 원해요. 예쁜 옥탑방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강이 보이면 좋겠어요.

가까운 미래의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끔 지칠 때는 이 일을 접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욕심이 있는 편이라 춘천에 2호점을 차리고 싶기도 해요. 코로나가 좀 풀리면 아기자기한 가게 열어서 복잡한 음식 말고 쌀국수, 반미 이 두 가지 메뉴로 직원 한 명, 알바 한 명 두는 거죠. 생각은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워요. 고용된 사람 모두가 나처럼 일하지는 않잖아요. 식당 음식이래도 손맛이 있는데 내가 항상 자리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성 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면 망해요. 알바를 많이 고용해봤는데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시는데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열아홉 살에 한국어로 왔으니까요. 처음엔 공부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할 때 배웠죠. 거기서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번역하면서 단어를 많이 배웠고, 사회생활 하면서 대화 많이 하며 늘었어요. 요즘에는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일상 말투보다 조금 고급스럽게 구사하고 싶어요. 센터에 신청하면 한국어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오셔서 최대 중급까지 교육해주는데 제가 중급 이상의 수준이니까 배울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제가 원하는 책을 골라 공부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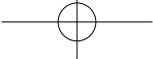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서류 준비가 복잡해서 늦게 제출하느라 담당자 여러분께 미안했고요. 배우고 나니 홍보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나름 SNS에 올린다곤 하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흥천에 오면 이런 맛집이 있다고 알리고 싶어요. 메뉴 디자인도 필요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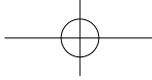
한국에 정착한 선배로서 대표님과 같은 삶을 꿈꾸는 이주여성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처럼 식당을 차릴 거라면 우선 사전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시작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력인데, 사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어서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거 같아요. 잘못하면 망해요.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일을 좀 하고 경험을 쌓은 뒤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급하게 시작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잘 배워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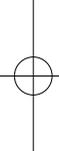
이주여성들이 예쁘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국가 이미지 망가뜨리지 말고. (웃음) 안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힘든데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있잖아요. 더 노력해서 당당하고 예쁘게 살면 좋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몰라도 안 되고요. 할 줄 아는 게 없다면 뭐라도 배우면
좋겠어요. 우선 한국에 살 거니까 한국어 먼저 열심히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만 실력이 늘어도 한국어 잘한다고
오히려 칭찬해요. 어디 가서 쉽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표지



표지





시골손두부의 하루

조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74번길 17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영문학 전공을 하고 통역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나 두부 전문 식당의 사장님이 되기까지, 조영 대표는 삶 속에서 마주한 여러 변화를 포용하고 긍정해왔다. 그는 ‘성공의 열매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가훈을 마음에 새긴 채, 진심을 다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자신의 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처음으로 본인의 이름을 건 가게를 오픈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설렘 반, 걱정 반 그랬죠. 내 가게를 시작한 것이라서
모든 게 힘들었어요. 처음 한두 달은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졌으니까요. 아무리 아파도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크게 욕심을 안 내고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소문도 나면서
손님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두부’라는 메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두부 요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흔히
짜장면 같은 요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정작
저는 짜장면을 잘 못 해요. 우리 시누이가 두부 요리 가게를
운영하는데 남편과 같이 와서 배우면 어떻게냐 하더라고요.
또 두부는 남녀노소 모두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많아요. 특히 저희 가게는 주변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른 구에서 공사를 해도 트럭을 타고 와서 굳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세요. 정말 고맙죠. 그리고 일하는
아저씨들끼리 쓰는 단체톡방에 소문도 내주고요. 주변에
공사 있으면 저희 가게는 공사 인부로 늘 짝 차 있어요.
가끔 주변에 공사현장이 없는데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왔냐

물어보면, ‘멀리서 차 타고 왔다’ ‘맛있다고 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은 매우 고맙고, 언제 오셔도 제가 얼굴을 다 기억해요.

‘시골손두부의 하루’라는 이름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남편이요. 남편이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시골손두부’ 하면 낡은 집의 인테리어를 떠올리는데, 그건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단에 사업 신청할 때 인테리어 작업을 기대하면서 지원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깔끔하게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낡은 가게 이미지를 깨고 싶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부 자주 먹어요. 점심, 저녁 가게에서 밥을 먹는데 두부 없으면 안 돼요. 어릴 때도 두부 좋아했는데 원래 한국 두부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두부는 맛있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우리 가게보다 두부 더 맛있게 만드는 곳을 아직 못 봤어요. 남편이 아침에 시누이네 가게에 가서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오거든요. 그날 쓸 만큼만 만들어 와서 파는 거예요. 두부가 떨어지면 그날은 영업이 끝나는 거예요.

컨설팅 선생님께서도 여기서 밥 두 번 드셨는데 처음엔 얼큰 순두부, 다음엔 콩국수 드셨는데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 하시면서, 가격 올려서 만 원에 팔라고 하셨어요. 가끔 네이버 평가도 보는데 손님들이 거의 좋은 말을 남겨주셨어요. 어떤 분이

‘콩국수 역대급으로 맛있다’고 써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더 맛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식당을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유학을 한국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언어를 좋아했어요. 일본어나 한국어, 영어를 배울 때 머리에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언어마다 글 쓰는 게 좀 다르잖아요. 말이 곧 글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중국에서 다녔던 고등학교에 스무 개의 반 중 하나는 글과 관련한 분야로 특화된 반이었거든요. 제가 그 반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 반에서 하는 것처럼 언어 공부를 하다 보니 오히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고 공부 좀 더 해서 나중에 통역사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볼까?’ 생각했죠. 대학을 가려고 보니 중국은 워낙 커서 만약 제가 베이징에 가서 공부한다면 집에서 2시간을 가야 하는데, 차라리 한국이 더 가까운 거예요. 당시 제가 사는 곳에서 인천까지 4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올 결심을 했어요.

어학연수를 하던 일 년 반 동안엔 주로 외국인만 만나게 됐어요. 일본, 미국, 베트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서로 만나면 한국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교류를 했죠. 어학연수 끝나고 대학교 학과에서 공부할 기회가 왔을 때 국문학과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3학년이 되면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고

영어 공부할 기회도 준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선택했죠.

통역사의 삶을 고민하신 거 같은데 어쩌다 음식점 사장이 되었나요?

대학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통역 일을 좀 했어요. 나중에 취직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살기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호텔경영을 배워서 원래 음식과 관련한 쪽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음식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것이 아쉬진 않나요?

공부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나이 먹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공부하고 싶은데,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흘러가는 것처럼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젠 책 펴면 즐려요.

한국에서 외국인이기에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학교 다니던 시절, 대부분 좋은 기억으로 남았지만 꼭 10% 정도의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구나 싶다가도 ‘중국 사람은 머리 안 감는다’ ‘화장실이 더럽다’ 등 안 좋은 이미지를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5년 전 인터넷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동창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갈 때 산을 몇 개 건너서 가냐’ ‘너희도 아파트가 있느냐’, 당시 우리 기숙사가

8층이었는데 ‘너희는 이런 건물이 있냐’고 묻기도 했고요. 그런 걸 물어봐서 깜짝 놀랐었어요. ‘시야가 좁은 사람이 많구나’ 생각했죠. 옛날에 TV에서 중국을 그렇게 보여줬는지, 차별이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에는 맛있는 것도 없고, 후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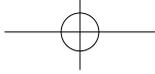
코로나 때문에 식당 운영이 매우 힘들시죠?

네. 코로나 이후로 걱정 많이 했어요. 매출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었죠. 사람들이 회사 출근을 안 하니 손님이 없어요. 포장을 해줘도 사람이 와서 들고 가야하고,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지만 저희는 두부라서 배달하기 힘들어요. 나중에는 오토바이로 움직여 봤는데 음식이 흔들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딸도 챙기고, 업체 운영도 하고, 이주여성 돕는 일도 하세요. 바쁘게 사는 중에 대표님에게 힘이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점심 장사 끝나면 시장 가야 하고, 딸의 환절기 옷이랑 신발도 사야 해요. 친구들이 하나씩 부탁한 거 해주면서 생활하다 보면 스케줄이 늘 짝 차 있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건 가족이죠. 중국에 계신 부모님도요. 아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가족과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요. 그래야 중국에



가서 부모님 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거죠. 부모님께서 오븐할 때 왔다 가셨어요. 예전에는 테이블이 좌식이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상 치울 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으면 딸이 힘들까봐 걱정되고, 손님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딸이 걱정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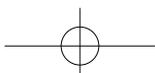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중국에 못 간 지는 2년 반 정도 됐어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 명절에 비행기 표 샀다가 중국에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못 갔어요. 차라리 그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가기가 더 어렵게 됐어요. 지금은 격리도 하고 코로나 검사도 해야 하니까요.

자녀 다 키우고 식당 운영도 안정된 후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주말은 편안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하루 지나다 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물가 옆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쉬고 싶어요. 평소에 너무 시끄럽게 살거든요. 낮에 손님도 제가 맞이하고, 저녁에는 딸아이 뒷바라지해야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하다 보면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주여성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산 물건을 우체국 통해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느 날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여기 한국말을 못 하는 중국인이 계신데 와서 통역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도와준 적이 있죠. 그때 나 자신이



좀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도 가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동사무소에서든 부탁이 와요. 제가 해결 많이 해드렸어요. 다문화가족의 여성분을 위해 통역하는 일을 돕는데 요즘도 전화가 와요. 이젠 코로나 때문에 오라고는 못하시고 대신 통화로 도와드려요. 제가 거절을 잘 못 해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되도록 알았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도와드려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민해서 어렵게 요청을 하는 건데 그걸 거절하면 정말 미안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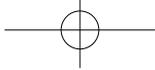
여유가 생긴다면 갖고 싶은 취미나 도전해보거나 배우고 싶은 게 있을까요?

옛날엔 많이 생각했어요. 미국에 1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많이 까먹어서 다시 쓰고 싶어요. 1년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거 같기도 해서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 가게를 크게 키우고 싶어요.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두부 요리를 먹을 수 있게요. 정말 맛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먹어 봤으면 좋겠어요. 음식점 크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자부심 느끼는 음식을 실제 먹어본 사람들의 90% 정도가 맛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성공인 것 같아요. 원래 두부 안 좋아하거나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면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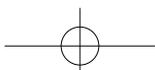
건 여유가 생기겠죠. 직원을 많이 두면 남는 시간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가게 하다 보니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적었어요. 같이 좋은 곳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딸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바빠서 많이 못 돌봐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는 걸 알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게 힘이 돼요. 아이에게 피자 하나를 사주더라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주는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야 돈이 생기고, 그래야 입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과정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엄마에게 항상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카드만 꽂는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 가훈이 ‘성실재근 (성공의 열매는 부지런함에 있다)’이에요. 과실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능력이 없어도 열심히 해서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는 뭐든 큰 게 있겠죠?

손님을 상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이요. 음식은 진짜 진심으로 요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아침에 반찬을 한 가지만 해도 먹을 만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삶아서 맛있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래 삶으면 곤죽이 된단 말이에요. 바빠서 그런 걸 손님상에 그대로 내주면 안 되거든요. 진심으로, 본인이 먹는 것처럼



해줘야 해요. 제 손님들에게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드리고 싶어요.

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건 처음이신데, 어떠셨어요?

진짜인가, 혹시 사기는 아닌가 싶었어요. 예전에 통역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받은 기억이 크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지원사업을 처음 받아봤는데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요.

다른 대표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 사업을 위해 질문도 해주시고요. 저도 열다섯 명 중 한 명인데 저만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어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힘든데도 다 열심히 하니까 그게 힘이 되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지원사업 안에서 어떤 도움이 가장 컸나요?

금전적 지원을 받은 거요. 그것으로 인테리어도 했고, 비가 오면 혹시 누전돼서 가게에 불이 날까봐 걱정했는데 안심되는 전기공사까지 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밤에 편하게 자요.

컨설팅받으면서 메뉴도 도와주시고, 메뉴판 디자인도 바꿔주셨어요. 디자인, 색상 같은 것을 전화로 상의했고요. 전문가 선생님께서 의견 주시는 게 좋았어요. 상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의지가 됐고요.

사업을 통해서 대표님의 삶에도 변화한 지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워낙 긍정적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주자가 한국에 와서 내 이름 걸고 가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는데, 비슷한 길을 걸어갈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국에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너무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일단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뭐가 되겠죠? 손님에게 진심인 것처럼 모든 것에 진심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본인만의 힘들고 괴로운 게 있어요. 100% 해결되는 게 아니면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사람 살면서 그런 게 없겠어요? 나중에 늙어서 돌아보면,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재미난 이야깃거리가 되는 거 같아요. 자식에게도 ‘그때는 힘들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가훈처럼 그때는 열매를 딸 수 있겠죠? 기대돼요. 자신 있어요.



아이스미 피부관리샵

왕구완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7

일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족이 가장 소중한 왕구완준 대표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강인한 이 시대의 여성들을 생각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언젠가 다른 도시에도 가게를 열어 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전하길 꿈꾼다.

한국에서 피부관리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전에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 피부를 좋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색조화장이 아무리 잘된 날이어도 저녁에 화장 다 지우고 거울 봤을 때 피부가 안 좋으면 기분이 별로잖아요. 저도 화장을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피부는 좋아 보이고 싶거든요. 나이 들면서 주름이나 기미가 생기는데 여성이라면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피부 좋다고 하면 기분 좋고요. 화장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부담도 됐고, 아기를 키우니까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았어요. 나에게 투자한다는 게 어려웠죠. 엄마들끼리 말로 ‘(나보다) 아들 하나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피부관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주는 걸 신청했고 방송통신대학교도 다녔어요. 시험도 잘 봐서 자격증을 땀고, 이후에 두피관리도 배웠어요. 배우는 동안 한국 여성들이 미용숍과 피부숍을 운영하면서도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 더 따고 강사 활동도 하는 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마흔 살이 되었지만 아직 나이가 많다고 느끼지 않아요. 아들이 대학 가면 저는 뭘 하겠어요. 그때 되면 내 일 짬은 있어야죠. 피부관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피부관리 업장이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했고, 작게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한국어로 시험을 봐야 하는 거라 자격증 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처음에 교육 신청하고 받은 필기시험 책이

두꺼웠어요. 안 그래도 한국어가 서툰데, 공부할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국어 잘하는 사람도 시험을 여러 번 보거나 불합격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휴대폰으로 단어 하나씩 번역하며 미리 다 공부했어요. 자격증도 공부하고, 집안일도 하고, 제 일도 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번역도 하고,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에 집안일 다 끝내고 나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시험지도 반복해서 풀어보고요. 필기는 한 번에 붙었는데 실기는 세 번을 봤어요. 그래서 실기를 포기할까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만 더, 끝까지 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죠. 이 자격증 딸 때처럼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명문대학교 갈 수 있었겠다 싶어요.

상호인 ‘아이스미’는 무슨 뜻인가요?

중국에서는 여자와 남자 둘 다 일해요. 어떤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위가 훨씬 높고 강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는 약하고, 남성중심주의가 있어요. 저는 여성 모두가 착하고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성은 혼자서도 아름답고 강하다는 뜻을 담고 싶었어요. 여자는 미(美)잖아요. 아름다울 미. 여자는 따뜻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요구받는데 저는 여자가 어느 정도 차가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얼음이란 뜻으로 ‘아이스’를 붙였어요. 그리고 미는 ‘나(me)’라는 의미도 있고요.

중국과 한국이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한국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가 중국보다 두드러지는 편인데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죠. 문화 차이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하루 이틀 겪은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집의 경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과 미리 이야기하면 돼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는 거죠. 남편과 결혼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타지에 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이해해달라고요. 우리 부부가 여덟 살 차이인데 남편한테 반말이 아닌 높임말을 쓰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할아버지한테 높임말을 쓰는 격이어서 그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는 것은 남편이 하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면 괜찮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여자가 커피 타면 남자들이 나와서 같이 마시잖아요. 제가 회사 다니던 초기에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도 있는 남자였는데 제게 커피 타달라고 해서 저도 반말로 거절을 했어요. 그때 사무실에 직원들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도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웃어넘겼어요. 여자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미안하기도 한데 감사하기도 해서 제가 커피를 타 드리긴 했죠. 그분도 저에게 커피 타줬고요. 서로 이해하면 사회생활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것은 반대로 자신에게는 힘이 드는 일이잖아요.

처음에 기기 하나만 있었을 땐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에

여성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기기 두 개를 구매했고 개인 돈으로도 하나 더 구매했어요. 기기 여러 개로 하니 힘이 덜 들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니 바쁘지도 않고, 예약을 잡아서 혼자 관리하면서 종종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엄마가 힘들게 돈 번다는 걸 알려줘야 하니까요.

가게에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는데 아침부터 준비하고 관리하잖아요. 한 손님 보내고 다음 손님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바쁘지만 시간 잘 가고 빈틈없이 메워지잖아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힘들거나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다들 힘든 순간이 있고, 또 기대가 크면 더 크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제가 너무 크게 기대한 건 아닐까 싶어요. 또는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더 공부해야죠. 제가 스물일곱에 한국에 와서 대학 갔어요. 제가 중국어과지만 교양수업은 다 한국어로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먼저 갔어요. 일상생활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학업을 더 배우려고요. 스트레스받기보다 중어중문학 전공을 먼저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한 다음에 교양을 공부하니까 좀 더 쉬웠어요.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업은 제가 투자하는 만큼 얻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그게 고민이기도 해요. 좀 크게 운영하고

싶지만 방법을 아직 못 찾았어요. 사람들 만나 얘기해보고, 혼자 인터넷으로 공부도 하고,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좀 더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금인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아이도 잘 크고 남편도 있고요. 10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한국어도 서툴렀고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회사에 가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 ‘으이그, 저래서 회사 다니겠냐’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한국어가 가장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계속하면서 결국 작지만 내 가게를 차렸잖아요. 중국어 수업은 제가 중국어를 잘해서 하는 거지만 피부숍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이도 다 크고 돌봄의 역할이 끝났을 때 대표님이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일도 하지만 집안일도 많이 하잖아요. 만약 아이가 대학 가면 남는 시간이 더 생길 테니 그때 중국에 계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코로나 풀리면 부모님과 여행을 같이 다니고 싶고요.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어디 다니실 수 있을 때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못 뵈는 지 2년 됐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은 안 하셨나요?

부모님 걱정 안 시키는 딸이라 어렸을 때부터 혼자 알아서

관리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준비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와서 회사 다니고 중국어 수업도 해서 모아둔 돈도 있으니 투자했던 거죠. 작게 운영하는 건 이제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 집에 타격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은 없어요. 제가 좀 안전하게 천천히 하려는 편이에요.

여성재단의 이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지인이 카카오톡에 이 지원사업 홍보물을 올려서 알게 되었어요.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매출도 없고, 작은 피부숍인데도 신청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된다고 해서 다행이었죠.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데 아는 게 없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다 싶었죠.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어도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으니까요.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 받아 지원서 작성하고 신청했어요.

가장 도움이 된 건 어떤 부분이었나요?

컨설팅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편하게 얘기해주시고 분도 이런저런 것들 제안해주시고 어떤 것들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게 고마웠어요. 메뉴도 이것저것 많고 복잡해서 손님이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를 것 같다며 메뉴판 정리를 도와주셨거든요. 남성 왁싱도 메뉴에 있었지만 남성 손님이 없으니까 빼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긍정적으로, 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혼자 하면 키우지 못하고 방향 잡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재단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임대 계약 2년 만기로 인해 불안감이 있거든요. 재단과 소통하며 이런 불안함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위료가 되기도 하고요. 더 성장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명, 한 명의 손님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든 저에겐 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손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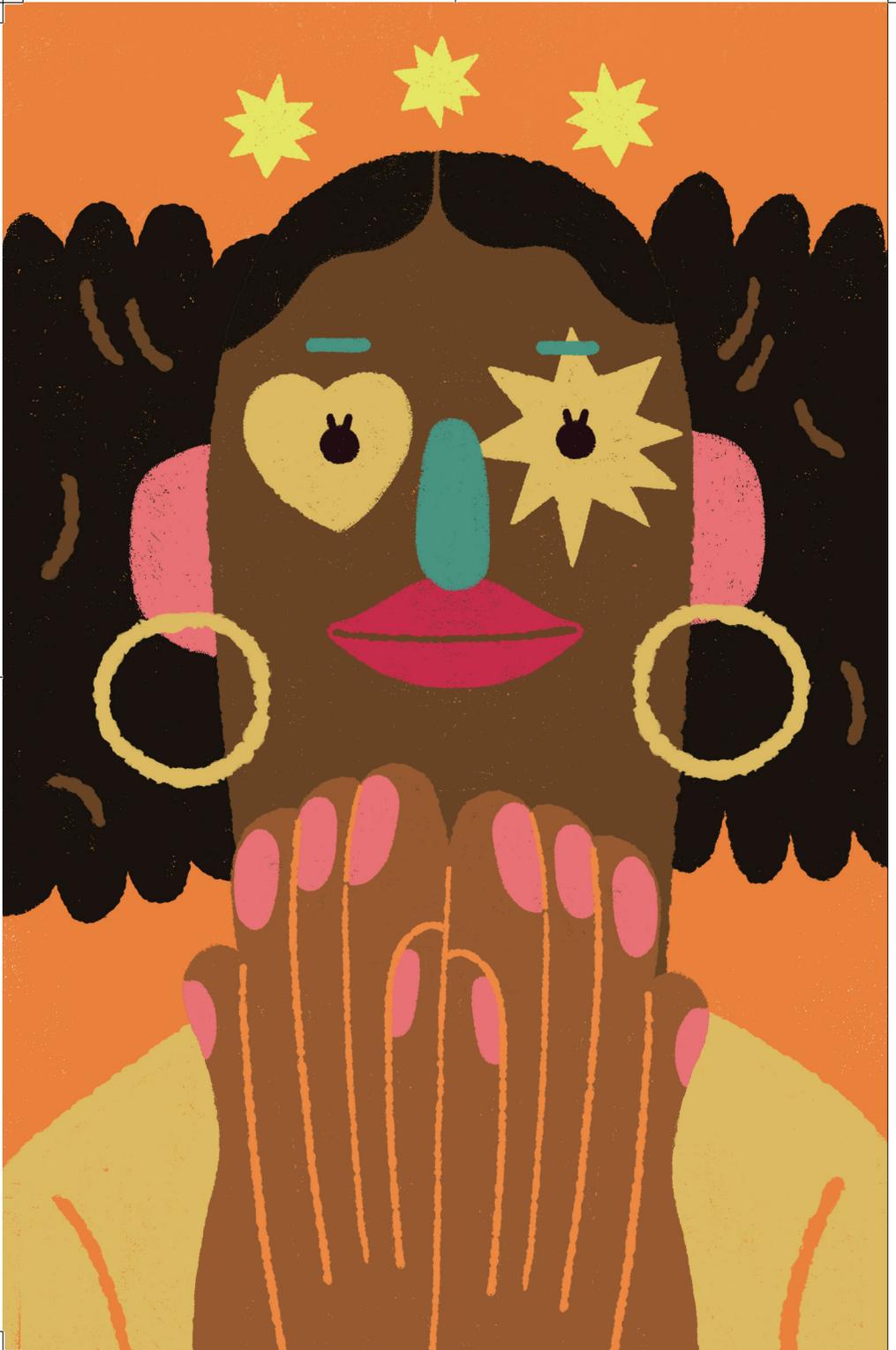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이주여성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일하고 싶은 이주여성이라면 무조건 바로 일해야 해요. 예쁜 옷 입고 싶을 때 사야지, 나중에는 못 입을 수 있잖아요. 일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자기 사업체를 당장은 열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부터 해도 돼요.

사업이 번창하고 생활이 풍족해지면 그다음으로는 어떤 일을 펼치고 싶으세요?

몇몇 도시에서 프랜차이즈를 열고 싶어요.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 일해도 좋고요. 아기 엄마들도 도와주고

싶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많이 다녔는데 이곳에 와서 힘들게 사는 이주여성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먼 곳으로 시집와서 타지에서 아기 낳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에 잘 살려고 왔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잘 살 게 아니면 고향에서 사는 게 낫죠. 자기 자식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 엄마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잘 되면 정말 다문화가족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잠깐 일해서 용돈 버는 정도라도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게 좋으니까요.



아프리카

크리스티나

경기도 평택시 국제로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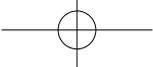
대륙, 기후, 언어, 문화가 전혀 다른 라이베리아에서 건너와 한국에서 10여 년을 보낸 크리스티나는 언제나 고국의 음식이 그리웠고,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식자재 쇼핑몰인 아프리코를 창업했다. 일상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갖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인생을 든든하게 바쳐주는 믿음과 꾸준한 글쓰기로 자신의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어간다.

한국에는 어떻게 와서 살게 되셨나요?

남편이 세네갈과 나이지리아를 오고 가며 일을 했고, 당시 제가 그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자주 만나다 보니 알고 지냈고 2008년에 한국으로 처음 오게 됐어요. 2년간 승무원과 3년 동안 다른 곳에서도 근무한 경력으로 한국에서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었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이후 남편에게 버림받고 싱글맘으로 지냈는데 법정 소송에서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큰 노력을 했음에도 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혼자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제게 영어 강사를 제안하셔서 처음에는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다가 초, 중, 고등학교까지 경험을 확장하며 지금까지 12년간 영어강사로 일했어요.

아프리카는 어떤 계기로 생각한 사업이신가요?

여행사 운영의 꿈이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했고, 한국에서 공장이나 일반 직장에서의 근무는 어려워서 영어강사로 일했지만, 그 당시에든 언제나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는 2016년에 계획을 하다가 2017년도에 열었어요. 이태원에 왔다 갔다 했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서 직접 운영해보고 싶었죠. 처음엔 물품을 사서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제품을 좀 더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사업 자금 5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이후엔 웹사이트도 3개월 동안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와 코리야를 합친 단어예요. 나중에는 라이베리아에도 아프리카 관련 매장을



열어 수입과 판매업을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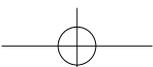
엄마가 펼친 사업과 차린 가게를 보고 누구보다 딸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한국 나이로 열여섯 살,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평소에
물품 판매를 도와주고 특히 포스 사용법 같은 건 빠르게
익힌 후 저에게 알려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것저것
검색해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해주는 등 매니저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죠. 딸은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딸의 꿈은 디지털 마케터예요. 예전에는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업을 하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업을 직접 하고 싶어 해요. 전 딸의 그런
선택이 마음에 들고요. 저도 처음엔 전공은 유아교육과
관광이고 교육 관련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아프리카 분들이 가게를 많이 찾나요?

처음에 송탄에서 개업한 이유는 임대료가 저렴한 것도
있지만, 평택에 아프리카 출신 분들이 많이 모여 살기도
하고 미군기지에 있는 미국인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 원래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открыт한 거라 궁금해서 구경 와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10월에 오픈 했을 때는 재고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물건들을 갖춰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음식이나 라이베리아 음식은 아직 생소한 단계인 것 같아요.

주 고객층은 아프리카 분들이지만 한국 분들께 아프리카 음식에 대해 알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 한국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는 식료품을 파는 마트이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사로서 일했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기도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요리법도 가르치고 싶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지역 축제 같은 곳에서 아프리카 음식을 소개하고 싶고요.

한국인 손님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제품을 찾나요?

보통 콩, 고춧가루, 그리고 향신료예요. 놀라운 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오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없는 건 찾아서 갖다 놓기도 해요. 제 추측으로는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거기서 먹어보고 맛있었던 걸 찾는 거 같아요.

대표님이 가장 잘하는 아프리카 음식은 뭐예요?

대표적인 음식으로 졸로프 라이스와 푸푸를 소개하고 싶어요. 아프리카는 55개국이 모여 있는 대륙이고 국가마다 음식 스타일이 다른데, 특히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다른 스타일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아프리카 출신이라 대표적인 걸 꼽자면, 졸로프 라이스와 야자버터로 만든 국과 술인데, 가나에서도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야자버터를 활용한 요리를 소개하고 싶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 차이가 있나요?

예상과는 다르게 오프라인의 매출이 훨씬 많아요. 처음에 오프라인은 쇼룸으로만 운영하고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온라인도 괜찮긴 하지만 오프라인 매출이 커서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어요. 평택 쪽에 가게 하나 더 열면 어떠냐며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표님에게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오래 있다 보니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의 문화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있어서 가깝게 느껴져요. 이젠 라이베리아에 가도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하려고 하고 그쪽 사람들은 너무 느려서 속 터져요. 딸도 이제 한국 사람 같아요.

어떤 취미로 일상을 보내나요?

글을 써요. 어머니 생신에 맞춰서 출판할 계획이 있어요.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신앙으로 슬픔을 이겨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신앙을 넘어 인생에서 믿음과 같은 게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을 <Isn't Faith Crazy>라고 정했어요. 처음에는 기댈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꿈이나 믿음을 가져야 했고 신앙으로 이겨내기도 했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왜 믿음을 가져야 하나 의문을 품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꿈을 이야기하면 돈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며 미친 사람처럼 봤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제가 글을 쓰느라 컴퓨터를 끼고 사는데 딸이 나보다 컴퓨터가 중요한 거 아니냐며 질투하기도 해요.

많은 일을 겪고 부딪히면서 힘들 때 의지가 되었던 것이 종교 안에서의 믿음이었군요.

신앙은 내 모든 것이죠. 어릴 때 어머니가 목사님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교회 음악을 통해서도 힘을 받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신에 대한 분노도 느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려 해요. 사람은 신체와 정신뿐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이 너무 기대돼요. 글을 쓰며 인생을 뒤돌아보고 정리하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책을 낸 뒤에는 인생 코치로도 활동해보고 싶어요. 좋은 글귀를 정리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자기계발도 중요하죠. 계속해서 책을 읽거나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힘을 못 받아요.

완전히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은 정말 큰 도전일 텐데요. 유경험자로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해요.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언어장벽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한국어는 70% 정도 이해하는데 언어보다 문화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딸을 위해서 드라마도 시청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국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도 중요하고요.

어려움을 겪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앞서 언급한 제 책처럼 믿음을 잃지 말고 꿈을 갖고 겸손함을 유지해야 해요. 사업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하루 종일 매출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죠.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에 살면서 직장에서 차별을 많이 겪었어요. 직접 소송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적도 있었어요. 버스에서 어느 노인이 옆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등 폭언을 퍼붓고 집까지 따라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에서 같이 내린 두 학생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후에 안산에 있는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벌과 배상을 얻어낼 수 있었고 신문 기사로도 나왔어요. 그게 한국에서 외국인이 승소한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가해자는 합의하자고 했는데 이건 인권의 문제고 처벌을 받는 게 맞다 했죠.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중학생 딸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당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더 심했어요. 5년 동안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안산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니까 외국인 친화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은 ‘너는 한국인이 아니다, 어머니가 흑인이지 않냐’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죠. 처음에는 그런 것에 분노했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소수만이 그렇다는 걸 알기에 지금은 그러려니 하는데, 그 소수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한국에서의 차별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어요.

아직도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한국도 세계화가 되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을 가난한 사람이나 미등록 이주민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외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희망을 품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편견을 좀 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프리카의 이용객이 대표님을 어떤 사장님으로 기억해주면 좋을까요?

친절하고 소통을 잘하며, 고객응대와 서비스가 좋은 사장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실제로도 피드백이 좋다고 말씀해주시고요. 온라인도 3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환불이

원활하게 처리되었다며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 주시거든요.
혼자 운영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일해요.
과거에 여행 업종 경험이 있어서 고객응대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계속 배워서 고객층을
확장하고 싶어요.

**바빠 살고 계신데 가까운 미래의 바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주말에 손님이 많고 주중에는 퇴근 후 사람이
많아져서 저녁시간에 좀 바빠져요. 그렇게 일하면서
자녀돌봄으로 바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10년 거주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분점을 개업하고
싶어요. 소매보다는 도매로 크게 열면 좋겠어요. 직접
수입해서 아프리카 음식과 식자재를 한국에 들여오고 싶고,
프랜차이즈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연변양꼬치

최매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7길 8

최선을 다한 만큼 결실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재를 충실히 일궈나가는 최매화 대표. 식당을 운영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때로는 산을 오르거나 이따금 가족과 밤바다 여행을 떠나며 힘든 순간들에서 온 스트레스를 날려 버린다. 나 홀로 여행과 펜션 운영의 꿈을 이룰 그날을 기다리며, 그는 매일매일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식당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도 어차피 일하는 거니까, 남들 눈치 보는 일보다 조그맣게라도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는 게 기분 좋고요. 요리는 자신 있는 거만 올려놨어요. 굳이 잘하지도 못하는 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일일 매출은 제가 혼자 해도 60만 원까지 찍은 적도 있어요. 저녁에 4시간만 해도요.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 건 이게 처음이죠? 대표자 이름에 최매화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어땠어요?

그냥 그렇던데요. 별로 감동적이진 않았고, 부담됐어요. 대출받아서 시작했으니까. ‘언제 벌어서 돈을 갚지?’ 그런 생각을 했죠. 남편은 자기가 벌어서 갚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게 있잖아요.

중국 음식에 자부심이 있다는 게 지원서에서 느껴졌어요. 그중에도 왜 양꼬치인지 궁금해요.

일단 남편이 좋아하고 고집을 부려서 규모도 커졌어요. 저는 혼자 조그맣게 하려고 했거든요. 메뉴는 중국냉면, 온면 이렇게요. 겨울에는 온면 하고 여름에는 냉면, 테이블은 서너 개 정도 놓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양꼬치 좋아하니까 나보고 하래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처음엔 양꼬치 못 먹었어요. 양고기의 노린내를 안 좋아했거든요. 남편한테 배우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혼자 15개까지 먹어요.

양꼬치를 선택한 거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 힘들 때요. 그리고 남편이 와서 먹고 계산 안 하고 갈 때 해요. 가끔 남편이 와서 회식하는데 10인분씩 먹고 처음엔 계산 잘하다 지금은 안 줘요. 어차피 니 돈이 내 돈이다 싶은가 봐요. 8월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거의 200만 원은 돼요. 그럴 때 ‘아, 이거 괜히 했다’ 싶죠.

연변양꼬치

손님들이 왜 이 매장에 찾아올까요?

여기 너무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해 주시는 손님이 많아요. 그럴 땐 뿌듯한 느낌이 들죠. 음식은 맛있는데 사장님이 불친절하면 안 가고 싶잖아요.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사장도 친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은 맛있어요. 근데 사장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날은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럴겠지 싶어서 한 번 더 갔는데 두 번 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안 가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살아요. 남편도 나도 혼자 돈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가 되면 손님 없고, 큰아이도 알바가 없고, 내일이 주말이면 손님 없는데 가족끼리 바다 가자고 해서 양양 다녀오기도 해요. 밤바다 보고, 코로나니까 외식 안 하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서 차에서 먹고 돌아와요. 괜찮더라구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원미화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것들 모두 그만하고 쉬어도 될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혼자 여행 가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요. 어디일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한 번도 혼자 안 가봤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식당 운영하면서 여자여서 차별받고 불편했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특히 술손님. 여자가 장사하다 보면 남자가 치근덕거리고 별말 다하는 거요. 처음엔 그런 손님이 많았어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엉덩이를 만지지 않나, 어깨를 툭툭 치지를 않나, 별 손님이 다 있어요. 제가 말이 세고 딱 잘라서 그런지 지금은 거의 없어요. 농담은 하는데 그렇게 들이대지는 않아요. ‘신고하면 걸릴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흥천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하죠.

한국으로 온 이주자로서 듣는 차별도 있었나요?

처음엔 차별하는 말들 많이 듣곤 했어요. 새로 와서 잘 모르는 손님들은 특히 그런 말을 더해요. 중국은 어디가 더럽네, 씻지도 않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안 씻는 거지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다 비슷한데 중국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렇게 가끔 중국 사람에 대해 어찌고저찌고 얘기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지역 분이 처음에 와서 술 마시고 진상을



부렸어요. 그래도 아끼 아빠하고 좀 아는 사이니까 문제 삼지 않고 무시했는데 자기가 이장 됐다고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중국 사람이어도 한국에 이민 왔으면 한국 사람인데, 신고했어?” 하고 묻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내가 쳐다봤어요. “사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연히 한국 국민이거든요. 말씀 조심하세요. 사람 무시하시네”라고 말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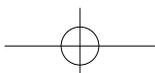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연변양꼬치

나이 많은 한국 사람은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며 무시를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도 크게 나겠죠. 시부모들도 ‘한국 며느리면 안 그럴 텐데, 외국 며느리라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잘못된 거죠. 솔직히 자기 아들이 결혼 못 해서 외국에서 아내를 구해온 거잖아요. 또 꼭 결혼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목적이 따로 있어서 한국에 온 거지 결혼 때문에 온 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힘든 순간에 응원이 되거나 용기를 주는 건 무엇인가요?

정말 힘들 때면 가끔 장화 신고 산에 가요. 산에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허리 아프고 피곤할 때는 누워 있잖아요. 힘들어서 병원에 갈까 하다가 그냥 산에 다녀오자 하고 갔다 오면 괜찮아져요. 아는 언니들이 나보고 이상하대요. 설악산도 좋다는데 바로 옆인데도 시간이 없어 못 가봤어요. 한라산도 가보고 싶어요. 아직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다음 여행은 제주도로 가려고 해요.

권미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하루하루가 너무 반복이고 힘들어요. 가장 원하는 건 저녁에 좀 일찍 잤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초저녁잠이 많아요. 가게 한 지 5년 넘었는데, 새벽잠은 없어서 6시에 일어나요. 저는 항상 아이들 새 밥해서 먹여 보내거든요. 많이는 안 해요. 딱 한 가지 해서 주고, 청소해요. 남편은 전혀 안 도와주는데 뭘 시켜요, 굳이. 해놓은 거 보면 맘에 안 들어요.

딸들에게 매일 아침 새 밥을 해주는 게 힘들진 않은가요?

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사업한다고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밥해 먹었어요. 제가 아홉, 열 살 때부터 스스로 밥을 해 먹었거든요. 옛말에 ‘아이들이 집에서 꼭 따뜻한 밥 먹어야 다른 데 가서도 따뜻한 밥 먹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친구 같은 엄마지만 아니라고 할 때는 딱 자르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큰 애는 괜찮은데 작은 애는 아직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딸들에게 능력 있는 엄마,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사줄 수 있는 엄마이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꿈을 키우고 계세요?

가게 안 하고 펜션을 해보고 싶어요. 길게 잡아서 2년 안에 흥천에서 할 거예요. 땅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어렸을 적 시골집 가는 느낌, 나 어릴 적에 살던 집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펜션은 제가 늙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식당은 손님 와서 바쁘면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펜션은 전화 받고, 청소하고, 관리만 잘해놓으면 급한 건 없잖아요. 음식 해주고 돈도 받고 그것도 괜찮고요. 옛날부터 펜션 하고 싶었어요. 꼭

이룰 거예요. 저 한번 한다고 하면 해야 하거든요.

이번 지원사업에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원금으로 집진기도 설치했고, 교육받은 것도 도움이 됐어요. 사실 내가 지원해서 될까 싶었어요.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글씨 쓰는 것도 엉망이잖아요. 뭘 해도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잘 안 되는데 호기심에 내봤어요. 일단 붙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됐네. 내 운이 돌아왔네?’ 이런 생각 했어요. 앞으로 잘 풀릴 거 같아요.

연변양교처

나중이라도 동네를 위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제가 돈이 진짜 많으면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시골에서는 누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내에 한번 나가려도 불편한 게 많거든요. 원래 노인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대표님처럼 자신의 식당을 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장사가 안되면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러네요. 젊고 건강하고 갈 길이 멀잖아요.

원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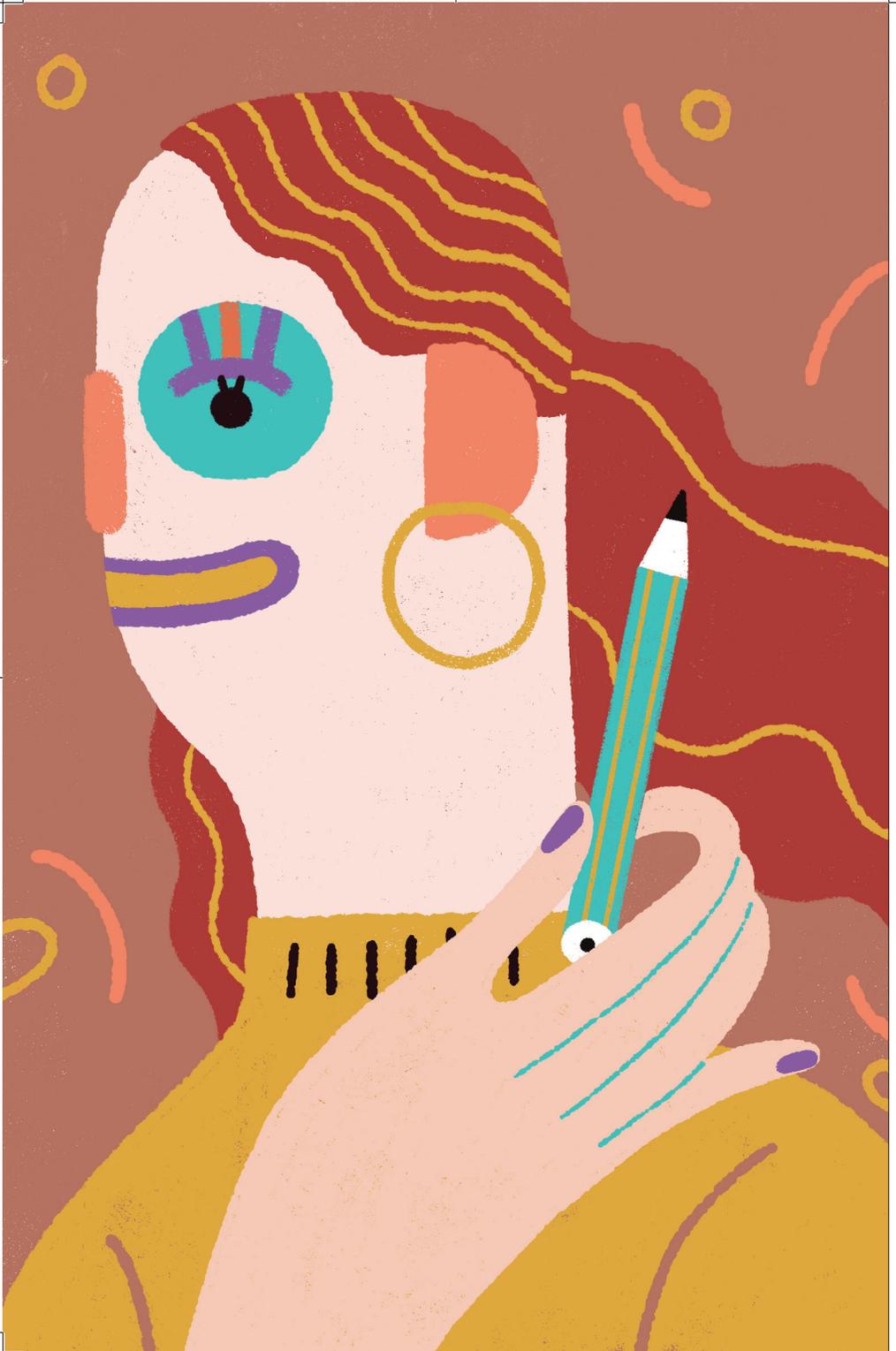
마지막 질문으로, 최매화는 50년 뒤에 어떤 여성으로 기억될까요?

평범한 사람, 씩씩한 사람이요. 한국에 와서 성격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좀 내성적이었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더라고요. 사람들과 말을 해야
통하는 거니까요. 말이 많아졌고, 여장부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친구처럼 잘 어울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요.

연변양표처

취미취



원어민해법 중국어학원

리춘지아

홍성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36번길 25-1

낯선 환경, 어려운 한국말, 나 홀로 육아. 중국 대도시 출신인 그는 한국으로 온 이후 줄곧 적응의 나날을 보냈다. 이제 홍성은 익숙한 동네가 되었고, 한국말도 늘었다. 육아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아이는 기특하게도 쑥쑥 자란다. 그 사이 학원을 차리고, 중국어 선생님이 된 리춘지아는 가르치는 일이 너무도 즐겁다고 말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나요?

2007년도에 친척의 소개로 결혼을 하면서 홍성으로 왔어요. 원래 신양에 살았어요. 신양은 중국 북쪽에 위치한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공항도 좋고 첫인상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9월이었는데 저녁 7, 8시가 되니 완전히 캄캄한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적응하지 못했죠. 중국에 살 때 아파트에 살다 갑자기 시골집에서 살아야 하니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요. ‘나는 왜 갑자기 시골에 왔나’ 싶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차근히 배워 나중에 서울이나 큰 도시로 떠나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 홍성이 조용하고 복잡하지 않아 좋더라고요. 여기서 친구도 생기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만났고요. 이제는 홍성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서울 가면 아마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는 나이도 많고요. (웃음)

한국여성재단을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던 복지관 선생님이 이번 기회도 알려주시면서 신청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서류를 준비했죠.

이번 지원사업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학원 분위기가 어때 보이시나요? 괜찮지 않나요?
지원금으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원래 이곳은 예전에 발레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거울도 있고요. 넓긴 하지만 제가

초반에는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를 못 했거든요. 학원 느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지원금으로 블라인드도 하고, 파티션도 설치했어요. 저쪽 방은 너무 추워서 그냥 창고로만 썼는데, 이젠 냉난방기와 텔레비전도 장만해서 새로운 교실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번 기회에 컨설팅을 받으며 알게 된 부족한 점과 극복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컨설팅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부족한 점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학생이 늘지 않는데, 그럼 홍보 수단을 잘 이용해야 하고, 블로그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학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제 고객이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주로 어린 학생을 가르치시나요?

저도 처음에 학원 차릴 때는 초등학생이 많이 오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있고요. 장사, 여행 등의 이유로 중국어를 배우러 오는 성인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전까지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성인 학생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언어를 가르친다는 건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중국 문화에 대해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저는 문화를 늘 같이 가르쳐요. 문화를 통해 중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중국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중국’하면 바로
떠오르는 의상, 음식, 문화가 있겠지만, 사실 중국의 남쪽과
북쪽 지방의 문화가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남과
북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중국어 잘
배워서 나중에 직접 가서 차이를 경험해보라고 말해줘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도 중국인이지만 북쪽에서
살았기에 다른 지역에 대해 모르는 게 많거든요.

중국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시나요?

한국어 공부하려 노력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요. 제가 학생도 아니고, 돌볼 아이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다 핑계죠.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럼 중국어는 어떤가요?

일과 생활 모든 면에서 중국어를 주로 쓰는데요. 저한테
중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저와는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싶어 하니 실제로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않고 중국어로만 이야기하게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중국어 공부도 매우 많이 하고요. 중국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인임에도 인터넷으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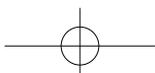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강의도 듣고, 가르치는 방법도 배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삶은 어땠나요?

사실 처음 몇 년 동안은 진짜 계속 우울했어요. 한국어도 못하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만 같고, 도대체 나는 이곳에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계속 집에만 있으니 더 그랬어요. 이모부가 한국 분이셔서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과 시댁이 처음 제게 했던 말과는 다른 상황이 많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거짓도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 낳았을 때는 한국말도 잘 못 하는 데다, 엄마도 처음이라 모든 게 다 어려웠고요. 시어머니가 아기에게는 절대로 중국어를 쓰지 말라고까지 하셔서 아기한테 중국어도 한국어도 다 하지 못 하니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 의지가 된 모임이나 사람들이 있나요?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거기서 만나고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홍성에 사는 한족인 중국인은 거의 여성들이고 서로 다 알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단체 채팅창에서 서로 정보 나누고, 서로 도움 받아요. 어제 누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각자 위로의 말도 해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상의하고 있어요. 50명 중에서도 10명 정도와 특히 친한데,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한창 애들 키울 때는 같이 만나 놀러 다니곤 했어요. 애들끼리도 친하고요. 친구 없으면 어려워요. 아마 지금처럼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학원을 운영하겠다고 결정하신 계기가 있나요?

저는 계속 가르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회사에 다닌다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을 텐데, 학원 운영은 일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고,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많아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 때문에 급하게 학교를 가야 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낼 수 있고요. 아이도 이런 환경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애 생각만 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2017년에 학원을 시작하셨어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려운 일이 더 많았어요. 우리 아이 여섯 살 때 이혼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혼자 외국에서 아이 키우며 사는 거라 아마도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강해야 했을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전혀 없었으니 당연한 거겠죠. 중국에 ‘엄마니까 강해야 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아이가 있으니 뭐든지 다 해야 해요. 다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일하면서 어떤 때 가장 뿌듯한가요?

일대일로 수업하고 가르치는 동안 학생보다 제가 항상 더 즐거워요. 일단 가르치는 일 자체가 좋고, 제가 유용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학생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재미있어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혼내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학생이고 아직 한창 자라는 때이니깐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학생을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이 집중을 못 하면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가르쳐주지 못 했으니 집중을 못하는 거겠죠.
(웃음)

원어민혜범중국어학원

리춘지아



윤하헤어샵

김윤하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4번길 24-1

타지살이가 힘들던 시절, 주변의 도움이 한없이 고마웠던 그는 세월이 흘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 현재의 김윤하 대표는 어려웠던 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에게 친절한 손길을 건넨다. 윤하헤어샵은 그들의 아지트를 자처하며 밤에도, 주말에도 반갑게 손님을 맞는다.

한국에서의 삶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나요?

한국 온 지 17년 되었네요. 지금의 아이 아빠 한 번 만나고 결혼해서 2004년에 여주로 왔어요. 처음에는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돌보곤 했죠. 2007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 미용을 배웠어요. 그때 되니까 애들이 조금 커서 일을 할 만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미용 일에 관심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단지 이 일이 아이들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했어요. 그러다 기술을 배워가고 실력이 늘수록 재미도 생겼죠. 원래도 그림 그리는 거나 뭐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미용 일을 하면서 손님 머리를 만지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야겠다 했죠.

헤어 미용도 하시고 네일아트도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애들 어릴 때 모자나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기도 했어요. 십자수도 하고요. 네일아트도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성함이 김윤하예요. 베트남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텐데, 한국 와서 이름을 새로 지었나 봐요.

원래 베트남 이름은 홍티화예요. 성이 홍이고, 여자 이름에 붙이는 티, 그리고 이름이 화. ‘화’랑 ‘하’랑 발음 비슷하기도 해서 ‘윤하’로 지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 이름으로 헤어샵도 열었어요. 자기 이름 걸고 한다는 게 정말 멋져요.

네. 처음에 가게 이름 지을 때 다른 이름 말고 그냥 제 이름을 붙인 미용실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헤어샵 운영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뭔가요?

사업하기 이전에는 집에만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없었으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좀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헤어샵을 연 뒤로는 마치 베트남에서의 모임처럼 우리 가게에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고, 머리도 하고, 물건도 사곤 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한국에 처음 온 베트남 동생들은 한국말도 못 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니까. 머리를 하러 오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 와서 커피 한잔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가곤 해요.

윤하헤어샵이 동네 모임방인 셈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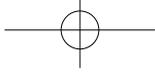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잘 못 하니까 누가 도움을 주면 그게 너무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동생들 오면 제가 도와주고, 언니들이 병원 갈 때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고, 그게 어려우면 전화 상담이랑 통역도 해주곤 해요. 동생들은 제가 가게 열어서 너무 좋다고 해요. 머리하고 싶을 때 다른 미용실을 가면 머리 스타일이나 염색 색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가 어려운데 여기 오면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타지 생활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미 주변의 이주여성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오면 외롭고, 고향이 그리운 건 모두가 똑같아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안 맞고, 남편하고 같이 살지만 처음에는 대화도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국어를 많이 배우라고 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으니까 가서 접수하고, 한국어도 배우라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올해는 센터에서 미용사 자격증도 무료로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 다 크고, 한국말 어느 정도 잘하면 그때 가서 자격증 가지고 다른 미용실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면 작게라도 자기 미용실을 차릴 수도 있고요. 그럼 애들 돌보면서 용돈 벌이도 하고 생활도 더 좋아지죠. 제가 살아보니까 한국말 못하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남편과 대화가 안 되면 서로 싸우게만 되고요.

주변에 베트남에서 오신 여성분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여주에는 요즘 중국이나 몽골에서도 오지만 아직은 베트남 사람이 제일 많아요. 다문화모임도 있고 베트남 엄마들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가끔씩 회식도 해요. 애들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같이 놀러도 갔고요. 지금은 일도 바쁘고 코로나도 있어서 가끔씩 모이는데, 그전엔 생일 파티도 하고 여행도 가곤 했죠.



한국에 살면서 가장 그리운 베트남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베트남은 2020년 2월에 갔다 온 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엄마와 가족 모두가 보고 싶죠. 명절이나 제삿날에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게 조금 슬퍼요. 한국에서는 추석, 설날 정도만 가족들이 모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친척과 가족 모임이 자주 있거든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주말에 별일 없다 싶으면 항상 가족이 모여요. 한국은 점점 친척들과 멀어지고 자주 안 보는데, 베트남은 식구와 친척이 자주 모이는 문화가 여전히 있거든요.

유리혜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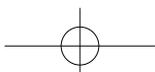
만약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살게 된다면, 여주와 한국이 그리울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베트남에 계속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베트남에 가면 3개월, 6개월씩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오래 살았고, 이곳에 내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잖아요. 이제는 베트남 놀러 가더라도 1, 2주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있으면 한국이 그리더라고요. 집도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국이 먹고 싶고 그래요. 옛날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한 달도 너무 길어요. 딱 1, 2주 동안만 베트남의 가족 보고 모여서 놀다 오면 돼요.

김영하

‘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니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생활이 점점 좋아지는 것. 그렇게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게 좋아요.

자아실현을 하신 거네요. 스스로 성장하면서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좀 불안했죠. ‘내가 할 수 있을까? 한국말도 잘 못 하는데… 외국 손님은 몰라도 한국 손님을 받을 수 있을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점점 괜찮아졌어요. 처음 샵을 열 때는, 베트남 손님들이 대화하면 한국 손님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마냥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제는 외국 놀러 온 것 같다며 편하고 괜찮대요.

이번이 한국여성재단에 두 번째 지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컸나요?

지원했을 때 두 번 모두 코로나로 영업이 아주 힘들 때였는데 한국여성재단의 도움으로 잘 극복했어요. 예전보다 수익도 늘고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어제도 컨설팅 선생님이 다녀가셨어요. 지금까지 6년 영업했는데, 어디 광고 올리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2년 전 네이버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손님이 좋다고 리뷰 남겨준 것을 제가 확인도 안 했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컨설팅을 통해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원장이니 한 마디라도 남겨야 했는데, 안 해봤으니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컨설팅 선생님께 또 한 가지 배웠죠.

지원사업을 통해 생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처음 사업했을 때는 많이 부족하고 시설도 예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중고 물건들로만 시작했거든요. 지원받고 나서는 인테리어도 개선하고, 좋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윤하 씨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인가요?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무조건 많이 해주고 싶은데... 첫째가 어렸을 때는 일 시작하기 전이라 많이 놀아주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제가 미용 배우기 시작한 때라 뭘 많이 못 해줬어요. 미용실이 매일 늦게 끝나니까 아이도 학교 끝나면 여기로 왔죠. 그러다가 밤 10시, 11시에 끝나니까 많이 미안했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았는데,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몰랐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싶은데 애들은 괜찮대요. 아이들 다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지금 첫째 아들이 고1인데 무슨 일 있으면 다 이야기하고 저랑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래요. 엄마가 외국 사람이니까 왕따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잘 놀고, 외국 친구들도 자주 우리 집도 놀러 오고 해요. 어머니니까 걱정도 많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 사람을 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괜찮아졌어요.

코로나 시대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마스크만 2년 동안 쓰니 답답했죠. 코로나 끝나면 전에 모였던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어요.



젤라또 팩토리

이명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1

건강하고 맛있는 젤라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주여성과 엄마 동료들과의 단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이명림 대표는 365일 쉬지 않고 달려왔다. 정작 본인은 아이스크림을 즐기지 않는다는 반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단한 자부심으로 손수 만든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사람이었다.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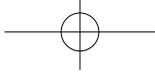
아주 예전에 상하이의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출장차 한국에 잠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다시 와봐야지 했어요. 원래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살았어요. 러시아랑 가까운 쪽이죠. 결혼하면서 한국에 완전히 정착한 셈인데 그때가 1998년도예요. 23년 되었네요.

한국 막 왔을 때를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그때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선입견이 많았죠. 외계인 보듯이 하기도 했고요. 물론 어딜 가나 인종 차별, 지역 차별 있지만요. 외국에서 온 거 티 안 내려고 해도 입 열면 억양이 다르니 차별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인식 개선도 많이 되었고요. 말투도 이제는 개의치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글로벌한부모센터를 곧잘 이용하셨다고 들었어요. 각각 어떤 곳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청 산하 정부기관이고, 글로벌한부모센터는 민간 운영의 외국인 엄마 모임이에요. 제가 기관에 다닐 때만 해도 다문화 정책이 한창 활성화될 때라, 인식 개선 캠페인도 많이 했고 지원사업들을 통해 혜택도 받았어요. 한국어 교육도, 운전면허도 다 무료로 해줬죠. 저도 그때 면허 땀어요. 지원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글로벌한부모센터는 민간단체인데 나름



조직적이예요. 행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모여서 음식도 만들어 먹곤 했어요. 요새는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참여는 많이 못 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있어서 모두가 발걸음이 뜸해졌죠.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 다시 활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젤라또 페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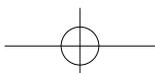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어떤 계기로 서울 성수동에 자리 잡으셨어요? 요즘은 인기가 엄청난 동네가 되었잖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첫 직장이 청담동이었어요. 그때 저는 청담동이 그렇게 비싼 동네인 줄 몰랐어요. 숙소가 필요한데 거기는 너무 비싼 반면, 다리 하나 건너 성수동은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온 게 벌써 20년 넘었네요. 결혼해 살면서 직장도 여기서 찾았고요. 제가 여기 매장을 낸 지는 4년 되었거든요. 매장 앞이 원래 도로가 아니고 인도였어요. 요즘은 도로에 차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매장이 저쪽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 앞은 주말에 사람들이 밀려다녀요. ‘아, 성수동이 뜨긴 떴구나’ 싶죠.

그럼 어떻게 여기 성수동에 젤라또 매장까지 내게 된 거예요?

만안요

예전에는 사무직에서 일했는데, 이혼한 뒤 어느 날,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먹고 살 만한 기술’이 있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빵, 미용 등등 두루두루 조금씩 해봤는데 어느 날 전봇대에 ‘알바 모집’이라는 전단지가 있어서 보니 젤라또 아이스크림 공장인 거예요. 그땐 젤라또가 뭔지도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일반 아이스크림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전해 보자 했고, 뭔지 알려면 한 번 봐야 하니까 공장에서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거 괜찮다!’ 그때부터 공장에서 약 2년 동안 일했어요. 이후 동업을 했는데 잘 안 됐지만, 오히려 ‘그래. 이게 기회다. 나도 내 것 하자’ 싶어 제 사업체를 내기로 했죠.

젤라또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나요?

젤라또는 유통기한도 없고, 재고도 없고, 혼자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해요. 재료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맛을 그때그때 제조할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시장에서 깻잎을 사다 넣으면 깻잎 젤라또가 되는 거예요. 색소나 향 말고 원재료를 그대로 넣어요. 건강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원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나 봐요?

사실 저는 안 좋아해요. (웃음) 제가 체질적으로 몸이 찬 사람이라서요. 그렇지만 저는 먹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어요. 나름대로 좋은 것을 만든다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죠. 막 퍼먹지는 않지만 만들면서 매번 간은 봐야 해요. 그럴 때마다 한 입 먹으면서 맛있다고 혼자 감동하곤 하죠. 실제로 배달 앱 리뷰를 보면 한결같이 저희 젤라또가 맛있다고 해요.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계절을 타는 장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웬지 여름에만 잘 되고 겨울에는 손님이 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요즘은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덜 춥죠. 겨울에도 손님이 있어요. 밖에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손님 보면 사실 저도 신기해요. 물론 제가 팔고는 있지만 ‘저 사람들은 왜 이 날씨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까’ ‘왜 이 날씨에 배달을 시킬까’ 싶거든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안은 따뜻한데 시원한 거 먹고 싶은 밤에 아이스크림 배달을 시킨대요. 그럼 또 저는 ‘이 밤중에 먹고 싶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녁밥 먹고 조용히 텔레비전 보다가 좀 출출하다 싶으면 주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젤라또 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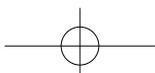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젤라또 팩토리만의 레시피가 있나요?

원래 젤라또는 유럽 아이스크림이니까 초코, 바닐라 맛이어야 할 것 같잖아요. 물론 그것들도 저희 메뉴에 있지만, 저희는 주로 우리한테 익숙한 흑임자, 썬, 오미자, 현미, 단호박, 무화과 같은 우리 농산물과 제철 과일을 많이 써요. 설탕 비율은 확 낮췄고요. 그래서 많이 달지 않아요. 건강하고 맛있는,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맛이에요.

이민호

아이를 키우시면서 일한다는 게 사실 좀 버겁기도 하잖아요. 어떠셨어요?

딸 하나 있는데 초반에는 친정엄마가 오셔서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같이 살고 계세요. 다행인 건 제가



이혼하고 한창 혼자서 아이 키울 때, 한국 사회에 양육 지원과 다문화 지원 정책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워킹맘으로서 순조롭게,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었어요. 온종일 하는 어린이집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종일 돌봄도 지원받고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죠.

한국 사회가 좋은 일을 나름 많이 했네요?

저는 정책이 주는 혜택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여성재단의 이와 같은 지원이 있다는 게 가뭄의 단비라고 할까요?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고 혼자서 생각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더 나운데, 컨설팅도 받고 관련 교육도 받으니까요. 자금도 항상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금전적 지원도 해주니까 정말 좋죠.

한국여성재단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제가 다문화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해온 것이잖아요. 이곳 직원 중에 엄마도 많았어요. 그러니 차라리 사회적기업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사업하면서 어떤 부분이 특히 취약하다고 느끼세요?

홍보를 잘 못 해요. 제가 스마트폰 활용, 사진 촬영, SNS 등 이런 것에 약해서 못하고 있어요. 다행히 딸 아이 도움을 꽤 받았어요. 배달 앱에 이벤트를 올릴 때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문구나 표현을 활용해 딸이 올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테니,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과 홍보를 해줄 분이 절실히 필요해요.

홍보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지런해야 하고, 글도 잘 써야 하고, 자주 포스팅도 해야 하고요.

제가 잘 못 하는 것 중 하나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조용조용 내 할 일 하는 게 편하지, 사람들에게 ‘나SNS 합니다’라고 알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요즘의 비즈니스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 잘해’ ‘나 오늘 이런 거 해’라고 마구 말해야 하는데, 저는 그걸 자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홍보고 표현인데, 제가 그걸 잘 못 해요. 여태까지 홍보할 만한 일들은 어마어마 많았거든요. TV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도 나왔고, 국회의원도 몇 차례 온 적 있고, 홍석천 씨 SNS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홍석천 씨는 그냥 ‘맛있다’라고 올렸는데, 다음 날부터 청담동, 신사동에서도 주문 들어오면서 그 주에 현재 매장 최고의 매출을 찍었죠. 자랑할 게 많은데 제가 내용 정리나 홍보를 하지 않으니 그냥 묻혀버렸어요. 저는 그저 일만 할 줄 알아요. 성실하게 내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행복한 날은 정말 많아요. 손님이 매장에 전화해서는 “지금 성수역 3번 출구로 나왔는데 매장으로 어떻게 가나요?” 할 때, 밤늦게 전화 와서는 “10시까지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을 때,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는 리뷰 남겨줬을 때. 그런 순간순간이 모두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일해 오셨어요?

저는 여기에다 제 모든 걸 걸었어요. 시간, 인맥, 모든 것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제겐 이것이 취미이자 일이에요. 매장 지하에 있는 젤라또 팩토리(공장)는 도면부터 시작해서 다 제가 혼자 했어요. 공장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인증도 받았고요. 저는 1년 365일 일 해요. 좀 아프면 그날 쉬고요. 아픈 날이 쉬는 날이에요.

전 진짜 후회 없어요. 저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해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목표 달성은 못 했어요. 공장 하나에 매장 5개가 목표인데, 지금은 젤라또 공장 하나에 오프라인 매장 2개(젤라또투유, 돌체돌체), 온라인 브랜드(빙과방) 1개예요.

젤라또 팩토리 대표로서의 희망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도 꽤 안정되었고, 현재 직원은 5명 있어요. 성남 사는 직원도 있고, 남양주 사는 친구도 있고요. 다 다른 곳에 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우리 젤라또 매장을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조용히,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125 125 512 125

125 125 10



큰나무 사천휘귀 양꼬치

류위엔

한국에서 외국인이자 여성이자 엄마로서 창업의 무게를
오롯이 견뎌낸 류위엔 대표. 누구보다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며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걱정하던 시절을 보낸 그였지만,
이제는 어느덧 사천요리 전문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어떤 기대를 하고 한국에 오셨나요?

처음부터 한국에 장사하러 온 건 아니었어요. 중국 집에 일이 생겨서 한국 남편과 함께 왔다가 여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말도 안 통하고, 직장도 다닐 수 없는데, 중국 음식이 유행한다고 해서 ‘가게 하나 차리면 어떨까’ 싶어 대전에 첫 식당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첫 가게를 오픈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처음엔 사천 음식을 할 줄도 몰랐어요. 사천에서 휘귀 가게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남편이 직접 배운 거예요. 한국에서 가게와 인테리어 업체를 구했고요. 가게 오픈하고 나니 다른 사업보다는 중국 음식업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음식 하기는 좀 쉽고 원래 하던 거니까 부담이 없었죠. 한국인이 하는 외국 음식보다 본토 사람이 하는 음식은 훨씬 쉽고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마라탕, 휘귀, 양꼬치는 대중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되리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5년 거주하고 사업하면서 어렵고 낯선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에서 유학을 했던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남편과 바로 한국에 왔으니 제일 어려운 건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사업이 더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가게에서는 휘귀만 팔았는데요, 한국의 불고기처럼 휘귀는 중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음식이에요. 몇백 평 되는 가게들도 많죠.

중국에서 유행한 음식이 한국에 들어오면 더 유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반에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꺄바로우, 양꼬치 등 다른 중화요리를 찾는데 없으니까 돌아갔어요. 실패였죠. 그래서 두 번째 가게에서는 꺄바로우, 양꼬치 등 다른 요리도 하니까 4년 동안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손님과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되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배달할 때 리뷰 쓰는 일도 처음에 다른 가게는 어떻게 답글을 다는지 보고 따라 했는데, 리뷰 쓸 게 너무 많고 매일 같은 답장을 할 수는 없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안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없는 상황에 좋지 않은 리뷰를 받으면 거기에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더라고요. 코로나로 배달이 늘었는데 리뷰를 안 하고 있어요. 월평균 매출 15%를 배달이 차지해요. 작년에 배달 처음 시작하면서 리뷰 관리 잘했을 때는 20% 정도 나왔는데 요즘엔 답장을 잘 안 하니까 떨어진 거 같아요.

내 가게와 메뉴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요즘엔 리뷰도 다양한 통로로 남겨지는데 그런 관리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마라탕은 젊은 사람이 많이 먹거든요. 그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을 잘 쓰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그 앱을 다운받은 사람도 없고, 우리는 봐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시간은 없고, 매일 무슨 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내면 배달 앱에 리뷰 답장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은 행동 가게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가게에도 그렇게 맡기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사업 참여하면서 가게에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원금도 주시고, 컨설팅 선생님도 오셔서 광고하는 방법, 카카오페이서 홍보하는 방법, 지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홍보 문장 쓰는 방법 등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고향의 음식을 먹는 중국 손님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가게에 항상 있으니깐 많은 손님과 이제 친구가 되었어요. 주로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거의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출장 가는 사람도 있고, 중국의 음식 문화를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서비스 주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평소에 연락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어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중국 손님들은 휘귀에 대한 평가가 제일 좋아요. 사천에 가서 직접 배우고 재료도 사천 지역에서 수입해서 만들거든요. 다른 가게 같은 경우엔 소스를 구입해서 만드는데, 저희는 휘귀 소스를 직접 만들어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휘귀 소스를 만드는 가게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생기니까요. 대신에 이렇게 만든 소스는 다들 맛있다고 해요. 한 달에 두세 번 만드는데, 한 번에 만들 때마다 최소 4시간 걸려요. 고추를 기름에 튀길 때 탈 수 있어서 약한 불에서 계속 밀어줘야 하거든요. 향신료가



20~30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비율이 있는데 그게 비법이에요. 그렇게 만든 소스는 바로 쓰지 않고 보통 24시간 숙성해서 쓸 수 있어요.

가게 이름에서 ‘큰나무’는 뜻은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나무를 좋아했어요. 큰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해 한 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뿌리가 깊어지는 나무’라는 의미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계곡 앞에 있는 한 나무가 신의 축복을 받아서 제시간에 크고 제시간에 열매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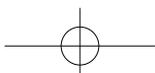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어떤 건가요?

감자탕이랑 회가 맛있어요. 중국에서 살던 지역이 바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선한 회를 많이 못 먹었어요. 여기서는 회에 소스를 찍고 깻잎에 싸서 먹는 방식이 맛있어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첫 끼로 서울서 먹은 음식이 뼈다귀탕이었는데, ‘와,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대표님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춤추는 거예요. 지금은 음식점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못 하지만, 퇴직하면 좋아하는 춤을 다시 하고 싶어요. 중국에 있을 땐 현대적인 춤을 쳤고, 중국 전통춤도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지금도 퇴직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춤도 다시 배우고, 학교도 좀 더 다니고 싶고, 교회 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생긴다면 한국어 공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중국에서는 대학 나오고 공부도 좋아해서 잘했는데, 한국에 와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죠.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면 일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업하고 있으니까 꿈이 많아요. 앞으로 중국 음식으로 프랜차이즈도 하고 본사도 설립하고 공장도 짓고 큰나무사천취귀양꼬치 가게 이름도 전국적으로 펼치고 싶어요. 3개년,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로고와 상표권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신청으로부터 1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1년이 지났고, 6개월 후 상표권 나오면 프랜차이즈로 등록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표준가게 몇 개 차릴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맹점 낼 의향이 생기니까요.

3년 후에 공장도 하나 만들려고요. 소스 만들 때 몇 시간 걸리니까 가게에서 만들면 힘들어요. 재료도 많이 쓰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공장을 만들어 거기서 소스 만들면 각 프랜차이즈 가게로 공급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재단의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이주여성 여러분을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벅차고 힘들어 보이기도 해요. 여성 사업자는 쉽지 않죠. 사업도 아이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저는 사업에서 계획하고 목표 달성하는 걸 좋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계획을 하고 정리를 해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엄마이기에 당연히 열심히 키워야 하죠. 사업도 잘 돌봐해야 하고 아이도 그만큼 돌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게 나오면 힘내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업과 아이,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늘 아이한테 미안해요. 좋은 날씨에 아이 데리고 나가거나 여행하고 좋은 것 보여줄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고 싶어도 결정을 잘 못 내려요. 내가 없으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갈까 싶어 갈까 말까 늘 망설이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늘 미안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주여성분들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등 어려운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인생 중에 무조건 만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중에 만나는 일들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가지고 생활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아서 네 번째 가게까지 차리는 도중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었죠. 하지만 스트레스받는 게 싫으면 가게 안 차리면 돼요. 밖에서 일하지 않고 생활비 남편에게 받으면서 스트레스 없고 어려운 것 없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해도 어려움은 무조건 와요. 저는 피하지 않아요. 오늘 피하면 내일 다시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간을 써서 어려움을 해결해야지 피하면 안 돼요.

가게 운영에 도전하는 다른 이주여성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여성이 모든 것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노력해야 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사업하면서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단 시작했으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이 큰나무사천황귀양꼬치를 어떤 가게로 기억해주면 좋겠나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맛있게 먹고 또 오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게에서 어디가 부족한지, 뭘 더 해야 개선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어요. 서비스도 더 열심히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여성재단에 감사해요. 사업 초기에 쉽지 않았지만 다양한 지식을 얻어 기쁘고,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재단이 있다는 것이 여성 사업가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나무사천취귀양고처

류위연



한사랑컬처

왕지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9길 39

비영리 단체인 한국이주여성연합회와 일자리와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체 한사랑컬처를 동시에 운영하는 왕지연 대표. 이주민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여성으로서의 시각을 바탕으로 여러 해에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여전히 만연하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모순에 수없이 부딪히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이들의 더 나은 삶,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이곳에 정착한 청년 왕지연의 삶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나도 크면 돈 많은 재벌이 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죠. 어릴 때 꿈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영화감독도 되고 싶었어요. 내가 영화 찍으면 정말 잘 찍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중국에서 한국 회사에 다녔는데 언어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의사소통 안 되니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한국에 와서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솔직히 중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서 돈 버는 게 더 쉬웠어요. 한국어, 중국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일거리가 많았죠. 공부를 하면서 과외도 하다 보니 중국어 가르치는 실력이 쌓였어요. 결국 중국어 가르치는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중국어 교육을 쪽 해왔고,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문화 단체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구나’라고 느꼈죠. 그래서 다문화 쪽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초창기에는 엄마들을 중국어 강사로 양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라의 말인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문제는 한국에 아이들 적성에 맞는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 사업을 하면서 중국어 학원을 만들었고, 중국어 교재를 개발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온라인 교육도 만들었고요.

엄마가 중국인인데 자녀가 중국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어, 한국어만 유창하게 할 수 있어도 한국에서 취직할 때 힘들지 않을 텐데, 아빠는 교육에 무관심하고 엄마는 외국인이다 보니 기초 교육이 일반 한국 가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좋은 배경이 없으니 미래에 혼자 창업하고 일할 때 더 힘들지 않겠어요. 엄마 나라말을 배우면 앞으로 성장의 길에서 덜 힘들 것이기에 꾸준히 중국어 교육에 힘을 쓰고 있어요. 일단 바탕이 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두면, 다른 국가 출신이라 해도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아이는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엄마는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도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했던 게 사업 초기의 취지였어요.

한시만결쳐

여성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자녀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와 특징, 강점을 알아가기 위한 이유로 단체를 설립하신 건가요?

예전에 제가 다문화 관련 봉사단체에서 활동했을 당시엔 다문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어요. 단체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도 신경은 써주지만 우리를 불쌍하거나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겼죠.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의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했어요. 연합회 설립 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출신국 문화홍보였고 그렇게 다문화 강사

양지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주여성 엄마들을 강사로 양성했죠. 자기 아이를 가르칠 수는 없으니 서로의 아이들에게 강사 품앗이를 한 거예요.

처음엔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엄마가 사회에서 지위가 있어야 아이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살더라고요. 엄마가 직업이 없거나 단순 노동직이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이가 드러내지 않으려 해요. 근데 엄마들이 봉사활동이나 강사활동을 하면 아이도 자랑스러워하면서 사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가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선 엄마가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우리 엄마 돈 잘 벌고 사장님이야’라면서 자랑거리가 생기는 반면, 가사노동만 하거나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면 ‘내세울 것도 없고, 퇴근하고 와서 나랑 놀아주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관련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컸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 시상식이나 봉사현장에 데리고 갔거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대단하게 보더라고요. 어디 가서 가족을 소개할 때 보면 우리 엄마는 중국인이고 다문화 사회에서 봉사하고 상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참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죠.

품앗이라는 단어가 특히 와닿아요. 서로의 노동력을 나눈다는 뜻인데, 사실 각자 살면서 일하기 바쁘니 다른 이주여성과 소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대표님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초기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같이 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나서요. 저더러 ‘언니는 항상 우리를 먼저 챙긴다’며 ‘언니가 하면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주민 친구들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함께 하고, 맛있는 것은 같이 나누어 먹어요. 나를 챙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저도 가진 게 없어서 그들에게 특별히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고, 상황이 그럴 수조차 없어도 최대한 도움을 주려는 자세 덕분에 그들이 ‘아, 이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인복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사업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2019년에 일명 ‘신데렐라 파티’를 했는데요. 결혼한 지 5년 이상으로 권태기가 왔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들을 초청해 사전 교육 후 1박 2일 캠프를 갔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다국인 행사라 보통 한국어로 소통하지만 한국어가 모국어는 아니어서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자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했어요. 지금껏 한국에 살면서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뭐든 얘기하고 함께 나누자 했죠. 참가자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무대 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루마니아, 몽골, 러시아, 태국, 모두 8개국 사람들과 통역 없이 갔어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도 다 같이 울었어요.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도 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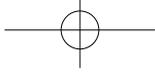
보시고 같이 울더라고요. 한국에 꿈을 품고 왔지만 안 풀리는 일이 많잖아요. 슬픈 일도 많고요. 알아듣지 못해도 서로 공감이 됐던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사가 여태껏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행사명이 왜 '신데렐라'였나요?

이혼 상담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들어와요. 동남아 이주여성의 많은 경우가 본인은 30대인데 남편은 50, 60대예요. 그런데 남편 수입이 없으면 어쨌든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엄마가 나가서 일하는데, 아내가 어리다고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주여성도 한국에서 5~10년 살다 보면 한국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만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사회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외국인은 없어요. 옆집 언니 사는 모양과 비슷하게 살고 싶고, 많은 걸 보고 들으며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혼 상담도, 가출도 많아요.

이주여성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가진다고 느껴 함께 캠핑을 가자고 한 거예요. 가서는 신데렐라처럼 드레스 입고 무대 위에 올라가보는 거죠. 이들이 한국 와서 자기 꿈을 못 펼치는 듯 보이기도 하고, 또 여자라면 누구든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당시에 제가 다문화 사업을 이것저것 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평생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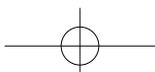
한국은 가부장 문화가 강한데요. 중국은 그런 점에 있어 매우 다를 것 같은데, 직접 느끼신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국에서는 남자가 가사 일을 하지만 한국 남자는 안 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남편도 잘 안 하거든요. 한국에서 가사노동은 아직도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너무 심해요. 명절에도 중국은 남녀가 공동으로 하거든요. 한국 남자는 주로 바깥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죠. 여자가 바깥일 잘한다고 시부모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돈 벌어도 시부모는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는 식이에요. 아니면 우리 아들 힘들게 번 돈 왜 가져가냐 하기도 하고요. 중국과 베트남에는 외식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밥 차리고 배웅하는 문화잖아요.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으면 밥을 차려야 한다고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회원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한국의 고부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한시만컬처

십여 년간 이주여성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오셨어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느끼는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06년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시작해 여러 단체에서 다문화 사업을 한다며 국가 예산을 가져다 썼어요. 시행 초기 4~5년은 ‘교육을 받으러 가면 뭐 주냐’ ‘얼마를 주느냐’를 따지는 이주여성들이 있었어요. 구조로 인해 나쁜 버릇이 만들어진 거죠. 좋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컨대, 배고픈 사람에게 샌드위치 만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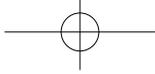
양지연



방법을 알려줘야지, 다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주면 뭐 하나요?
우리 연합회만 보아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취직하신 이주여성분들은 현재 다 자리 잡았지만, 그 당시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니던 분들, 다문화 사업은 공짜라고
생각하던 분들은 지금도 힘들게 지내요. 기술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지원이 많이 변했어요.
변화에 적응 못 하는 사람은 수급자의 삶만 사는 거예요.
예전엔 지원해주는 게 너무 많으니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앞으로 쪽 지원받으며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생각이 짧았던
거죠.

2019년에는 집회도 있었어요. 당시 익산 시장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잡종이라고 막말을 해서 전국 이주여성과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등에서 함께
집회를 했죠.

익산 시장이 다문화가족을 욕하고 막말을 해서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와 함께 나선 거예요. 전국을 도는 집회를
했어요. 이주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한
거죠.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다문화가족 자녀가 똑똑하다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했죠. 익산
시청 앞에서 “당신의 취지를 알지만 이럴 땐 사과하라”
했는데 너무 뻔뻔한 해명으로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냥
사과했으면 집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뉴스까지 나오니 우리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왜 그런 데 나서냐?” 하셨는데, 당장 보상받을
수는 없어도 나서서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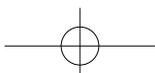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열 명 중 세 명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라고 해요. 이미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 살기에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사회임에도 여전히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은 뭘까요?

한시원결처

많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국가명을 아이들 이름 앞에 붙여 호명하던 일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모계사회입니까, 부계사회입니까?”라고. 모계사회라면 엄마를 따라가니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런데 아이들 국적이 한국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겠어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곧 한국 국민 맞잖아요. 근데 통계에 보면 외국계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한국 국민인데 왜 외국인 자녀라고 하나요? 엄마가 외국인이지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왜 군대에 가야 합니까? 투표할 때는 유일하게 한국인으로 인정하면서 선거 지나면 ‘아, 중국 사람이네’ 이래요. 너무 모순이잖아요. 담당 부서의 공무원조차도 다문화가족에 대해 아직 잘 몰라요.

양지연

더 이상의 개선이 없으면 손해 보는 건 국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할 때는 지역 이주여성에게 잘해주라고 해요.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파요. 우리는 죽어도 한국에 살아야 해요. 차별적인 시선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 다문화가족에 중고생 자녀가 많은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인권, 복지 분야로 진입해야 이쪽 전문가가 나올 테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졌어요.

코로나 초기, 한창 심했을 땐 버스에서 중국말만 해도 사람들이 놀라면서 힐끔 쳐다보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면서 안 좋게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 동네에서 버스, 지하철 타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집에 자주 있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기도 하고, 툭하면 중국 탓을 해요. 과거 걸핏하면 IMF 탓을 했던 것처럼, 중국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돌보고, 이주여성 연합회도 하고, 교육자 역할도 하시고 있어요. 다 끝내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면 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지금도 해방되고 싶기는 한데, 일 안 하면 아플 거 같아요. 건강하게 살려면 일해야 해요. 내가 일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일하면서 세계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죽기 전에 다른 나라 100개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요. 지금까지 20개를 다녀왔어요. 앞으로 천천히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싶어요. 이주여성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분들의 국가가 더욱 궁금해졌어요. 자비로 아시아 국가들을 가봤는데 시장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대화하고 물건도 살 수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한국의 이주여성을 보면 그 나라에서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살짝 알

수 있을 것도 같았어요.

한국으로 온 다문화 이주여성이 많은 국가에 제가 직접 가서 살아보고 기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싶어요. 출신 국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가 다 달라요. 어릴 적에 자랐던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르니까 생각과 특징이 다르죠. 직접 현지 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의 이주여성을 다 똑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석사 논문을 아직 안 냈는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조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연구는 없어요. 저는 이 연구의 결과가 국가별로 엄마들의 양육법이나 사고방식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연구를 계획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앞으로 가능하면 하고 싶어요.

한시라컬처

지금까지 여성재단과의 사업은 어떠셨어요?

연합회 설립 초기에 재단에서 먼저 저희를 주목해 주셨어요. 그 당시엔 사무실만 있었는데, 여성재단에서 3~4년 동안 저희에게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셨죠. 그 지원으로 공연팀이 만들어진 거고,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게 쌓여서 모임이 된 거예요. 이번에 신청한 < My Future, My BusinessIII >에는 컨설팅, 회계 교육, 자재 구매 등 실무적인 부분을 제공해 주셨어요. 매우 감사해요.

양지연

대표님의 꿈이 뭐예요?

예전의 꿈은 접었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그런 사소한 걸 바라요.

연합회는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주고 친정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어가고 싶고, 꾸준히 이주여성에게 걸스카우트 같은 곳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의 엄마 나라 언어교육이 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면 좋겠어요. 일반 아이들도 다문화 엄마들을 통해 쉽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다문화가족의 존재 덕분에 자신들의 아이가 글로벌 영재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요. 경제적 부담 없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재단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여성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연합회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주민 사업을 하다 보면 짜증 내는 사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여성재단은 항상 좋은 직원분들을 보내주세요. 허물없이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해요.

한편, 아이들이 꿈을 접지 않고 성장해서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후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재단의 후원을 통해 인재가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시말궐처

왕지면



협동조합 글로벌에듀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8-1

한적한 골목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향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 2층 문을 여니 알록달록한 인테리어, 색색깔의 장식품들, 프리다 칼로 자화상에 흥겨운 스페인어 노래까지 들려온다. 이건 마치 인천에서 멕시코 현지의 동네 식당으로 순간이동이다. 이국적인 요리까지 맛있게 먹고 나니 협동조합 글로벌에듀에 대한 궁금증이 배가 되었다.

본인 소개 먼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저는 중국에서 온 류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좀 오래되었죠. 2004년에 한국인 남편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의 두 딸이 있고요. 협동조합 글로벌에듀에서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인터뷰 준비하면서 지원서를 봤는데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사실 한국 분이 써주신 거예요. (웃음) 조합원 중에 두 명이 한국 사람인데, 그중 조수현 님이 쓰셨어요.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지내기도 하셨고요. 2009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가깝게 지내다가 조합 창립도 같이했어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에게 문서 작업은 어려우니 한국 분들이 서류 일을 많이 도와주시죠.

그런 반전이 있었군요. 조합 내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가지면 좋죠. 그럼 조합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총 11개 나라에서 온 14명이 있어요.

사실 '협동조합 글로벌에듀'보다는 지원서에서 언급한 '세상의 별의별 아줌마'라는 별칭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조합 만들기 전 원래 우리 모임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문화 강사이자 엄마였죠. 한 달에 한 번은 서로 돌아가며 한 집에 모여 가깝게 지냈고, 일 년에 한 번은 멤버들의 모국으로



여행도 갔어요. 몽골, 일본, 베트남, 태국 등을 갔죠. 저는 못 갔지만 페루에서 오신 분도 있어서 거기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별의별 아줌마’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협동조합 글로벌에듀는 어떤 곳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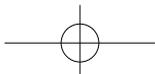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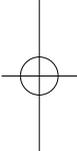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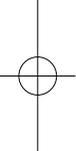
2016년에 창립했어요. 다문화 강사도 파견하고, 다문화 축제도 하고, 전통 의상과 물품 대여도 했고요. 교구를 개발해서 제작, 판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조합원 모두 인천에 살고요.

다문화 강사라는 직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다문화 강사의 주 역할은 아이들에게 본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모든 문화를 편견 없이 접할 수 있게 하는 인식 개선 중심의 문화 수업을 해요. 한국에는 여러 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여러 나라 배경의 아이가 많은데, 그중에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우리도 다문화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자녀 세대라도 편견 없이 서로 잘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문화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주로는 유치원에서 하는데요, 수업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멕시코 식당인 ‘마리데키친’까지 열게 된 건가요? 무려 11개국인 모인 조합인데 그중 왜 멕시코인지도 궁금했어요.

다들 다문화 선생님이로 일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봐야겠다 하던 차에 때마침 동구청에서 월세도 70% 정도 지원해주고, 인테리어도 일부 해준다는 지원사업이 떴어요.

우리가 케이터링이랑 출장 부페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카페만 운영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박물관도요. 직접 행사를 나가지 못하니까 전통의상이나 물건들을 전시하고 사람들 와서 구경하는 식이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우리 멕시코 선생님이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요리 솜씨도 좋은데 본인도 원래 멕시코 식당이 하고 싶었대요. 개인이 투자하면 부담이 매우 큰 일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조합이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 식당, 카페, 박물관을 다 하게 되었어요. 2층에 마리데키친, 3층에 카페인모자이크, 옥탑에 세별 스토리 하우스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도 우리 조합의 꿈이 다문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나라 선생님이 다 있으니 마을에서 각 나라의 가게를 하나씩 여는 게 꿈이었어요. 이 식당으로 우리가 그 꿈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 음식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입소문 좀 났나요?

올 4월에 오픈했어요. 여기 인천 배다리는 원래 조용한 곳이에요. 헌책방들이 있고, 드라마 촬영지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잠시만 머물다 가요. 우리는 동네 시끄럽게

하면 사람들이 혹시나 미워할까봐 일부러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차근차근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저희 식당을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손님들이 입소문 내주고 있어요.

마리데키친이나 카페인모자이크가 외국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고 오는 손님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알죠.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말투가 한국 사람과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단골손님도 좀 생겨서 일부러 오는 분도 계세요.

조합원들이 여기 식당과 카페에서 일하시는데요. 그럼 다문화 강사 사업은 잠시 쉬는 건가요?

원래는 여기 식당 장사가 잘되면 다문화 강연은 그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수익 면에서 봤을 때 강연도 당분간은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멕시코 선생님만 올해는 안 하세요. 월요일 하루만 쉬고 식당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내년부터는 익숙해질 테니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면서 본인도 강의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만들었고 또 여성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잖아요. 게다가 모두 다른 나라 사람이라 이해관계도 간단하지 않을 텐데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각자가 다문화 강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서로 자주 마주치며 활동하고 친해졌죠. 모국어는 다 다르지만, 모일 때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사 일을 하면서 서로 어울리며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다 조합이 만들어졌죠.

쪽 여자 조합원만 있었는데 최근에 남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회계 쪽에 도움을 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우리 조합원이 되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여기 인테리어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조합원이 함께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며 보람찬 기분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이 건물이 아주 오래된, 50년은 된 건물이에요. 옛날 사진첩 보면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이곳이 이렇게 변한 걸.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모여 한 달 동안 매일 벽 헐고, 바닥 헐고, 페인트 칠하고, 꾸미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정이 많이 들었죠. 이 건물의 변화 자체만으로도 보람차고 만족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꿨지?’ 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여기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조합원들 모두가 여기서 안정된 수입을 벌며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같이 도와주면서, 계속 앞길을 나아가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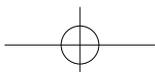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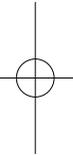
2018년, 2020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재단의 지원을 받으셨어요. 어떤 도움들이 있었나요?

2016년에 조합 만들고 사무실 얻어 일하다가, 2018년에 인천 간서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당시 이런저런 설비가 필요했는데,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지원서를 냈지요. 그때 우리한테는 지원금이 큰돈이었어요. 그때 장만한 온냉방기, 냉장고, 온수기 모두 지금까지도 여기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올해는 카페에 과일 가는 용으로 블렌더도 두 대 구매하고, 옥상에 있는 파라솔도 이번 지원금을 통해 마련했어요.

협동조합 글로벌에듀의 활동은 지역에 다양성도 불어넣어 주고, 인천 지역사회에도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나요?

사업을 하면서 우리의 예상보다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우리도 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식당과 카페 일을 하면서 오해와 갈등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 다문화 강사만 하던 조합일 때는 조합원이 매일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행사가 있을 때만 모이고 서로 재미있게 지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매일매일 얼굴 보며 일하니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예민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시간 지나면 예전처럼 서로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사업이 정말 잘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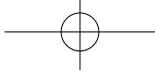


바라죠. 아직 카페에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만의 특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 물건도 많이 있고, 각기 특별하게 만든 것들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를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류엔 님이 중국에 살 때는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겠죠?

한국 처음 왔을 땐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저와 같은 상황의 다른 이들도 대부분도 외국어 강사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국어 강사 일을 했어요. 사무직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출산과 양육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더라고요. 공장일도 프리랜서처럼 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의 다문화 엄마들이 마찬가지로 사정이에요. 그래서 통역사와 다문화 강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2009년에 다문화양성교육을 받으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선생님 일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하다 보니 성격도 바뀌고, 잘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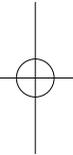
외국에서 건너와 한국에 살면서 일하고 싶은 엄마이자 여성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다 취업과 관련한 지원이 많아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처음 오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절대 급하게 취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튼튼히 잡아야 나중에 더 좋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한국어가



어느 정도 잡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고 더욱 확장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더 높은 단계의 공부를 하던지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취직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마음은 급하고 빨리 돈은 벌고 싶다는
 생각에 공장이나 힘든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몇십 년
 동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나이 들면서도 하기 힘들고,
 기회도 점점 없어지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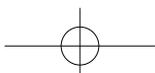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저도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이 처음에 저보고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고 계속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서류 때문에 짜증이 났거든요. 중국에서 다녔던
 졸업증명서나 성적표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유학했는데 그 증명도 필요하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 결국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공부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바로
 공부했으면 한국어도 제대로 더 잘하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보다는 더 높은 단계에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글서체
크리얼예비



언어와 문화가 모두 다른 사람이 모여 함께 일하면서 느낀
 중요한 덕목은 뭔가요?

저희 조합원 간에 갈등도 생기곤 하지만, 그럼에도 같이
 버티며 극복하는 과정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최대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들 부지런한 사람들이라 무엇이든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아마 그 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서로 친자매처럼 잘 지내왔어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각자가 지닌 장점도 다르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여야 더 힘이 생기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홍옌중국어 교습소

잔홍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65 환실코아 410호

하얼빈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으로 초청받아
중국어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쪽 해오다, 자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꾸린 홍옌 대표. 모국어를 향한 애정, 일하는 즐거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삶의 태도가 그를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것은 아닐까.

대학 전공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중국어를 가르쳐 오셨어요.
대표님이 보기에 중국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한자는 오랫동안 변화해왔죠. 한자는 쓰는 것을 그림이라
생각해요. 제일 어려운 한자는 획수가 50개나 돼요.
학생들에게 어떤 한자가 어려운지 물어봐서 같이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하죠.

중국인 인구가 많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도 중국인이
많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활동하며 중국어 하면 좋으니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국가로
나가서 중국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 계실 때도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 유학생을 위한 중국어 과외를 했어요.
가끔 한국 식당에 가서 파김치, 깻잎김치, 부대찌개 이런 거
먹었는데 완전 신기했죠. 하얼빈이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옷을 많이 입어요. 근데 한국 유학생은 딱
보면 알아요. 양말 없이 슬리퍼에 반바지 입어요. 인사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게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한국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제가 살던 하얼빈은 사람과 차가 많아요. 매일 뽕뽕거리는
소리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새소리를
들었어요. 아침에 산책할 때 새소리 있어서 좋았어요. 공기도
좋고요. 왔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2월인데 사람들이 눈 올 때



우산을 썼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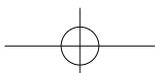
한국에 대해 좋은 느낌으로 시작하셨지만 어려웠던 점도 있었겠죠?

한국말을 아예 몰랐어요. ‘안녕하세요’도 몰랐죠. 식당도 메뉴 사진이 있는 곳에만 갔어요. 안 그러면 주문도 못 하니깐요. 한국에서 일할 때 다른 중국어 선생님이 있었고 몰라서 물어보면 도와주셨어요. 제가 가르친 엄마와 딸이 있는데 어머니 학생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학생들도 다 착해요.

아기 낳았을 때 좀 어려웠어요.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아이 낳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중국말을 못 하니깐 출산이 위험하잖아요. 남편도 한국말 하나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학생이 전자사전을 가지고 저를 보러 오셨어요.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을 검색해서 알려줬어요. 그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 어머니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지만 명절에 인사해요. 지금도 연락하며 가끔 만나죠.

중국인 여성이 가정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이끈다면, 한국에서는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여성에 대해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전에 차 없을 때 택시 타서 ‘OO로 가주세요’ 하면 기사님이 ‘어? 뭐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하고 물어요. 피부색 때문인지 ‘베트남?’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가 한국의 나이 많은 남자들이 중국 여자 찾아서



결혼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국제결혼 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라고, 제 남편은 중국 사람이고 나는 중국어 강사라고 얘기하면 시선에 변화가 생겼어요.

중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일하는 모습을 봐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도 모두 일을 해야 해요. 여자가 일 안 하면 남자한테 돈 받아야 하니까 일해야 해요. 사실 예전엔 일하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변했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한국 여성도 변화하고 있어요.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지금의 생활이 좋아요. 여행을 많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바쁜 게 좋고, 매일 스케줄이 있는 게 좋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에 수업하고, 친구와 밥 먹고, 운동하고, 수영하고, 그러면 좋아요.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때도 내가 데리러 가면 ‘엄마 오늘 어디 가요? 누가 와요?’ 물어요. 항상 일이 있어야 해요. 집에 누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일한다고 특별히 좋은 건 없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제가 취미가 많아요. 라탄 공예 배우고 가방, 지갑 만들기 좋아해요. 피아노 배우고 춤, 노래도 배웠죠. 예전에는 유치원 선생님도 했어요. 취미도 관심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아요. 다문화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했고요. 서로 이야기하며 부족한 걸 도와주니 좋아요.

또 매주 월요일 8시 이주여성끼리 줌에서 만나 춤을 춰요. 혼자 운동하면 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7개월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우니까 줌으로 같이 수업해요.
너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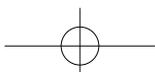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기와 같이 가족 모두가
외출해서 중국어로 대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밖에 나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시어머니가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일 안
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제가 원래는 매우 건강했는데, 그렇게 3개월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더라고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드라마만 내내 보게 되고요. 이제는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9시, 10시쯤 들어와요.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여성재단의 지원사업을 알게 되셨나요?

중국 사람들이 보는 홍보지에 올라왔어요. 금요일에
마감인데 목요일 밤에 공지를 봤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친구의 도움으로 빨리 서류를 써서 냈어요. 그 친구에게 매우
감사해요. 그 친구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한국에 20년 정도 산 친구라 이것저것 많이 알아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많이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도 친구들에게 한국여성재단에 대해 알려줬어요.
개인사업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야기했어요. 내년엔



지원사업 나오면 신청하라고요.

재단의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노트북, 프린터, 냉장고, 공책, 가방 등 여러 가지를 구매했어요. 현수막도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원금으로 제작한 가방이랑 공책도 홍보 효과가 있었어요.

중국어 강사 교육자로서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홍연중국어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새 아파트를 구매해서 다음 달에 이사하는데요, 오늘 현수막을 보니 그 아파트에 1800가구가 거주하는데, 중국어학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땐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처음 한국 와서 학원에서 일했을 때 나중에 혼자 학원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이 지나고 자격이 돼서 나 스스로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3개월 동안 학생은 한 명밖에 없던 적도 있었는데 관리비, 임대료는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계속하면서 수강생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코로나로 다시 수강생이 적어져서 4명 정도였나 그래요. 지금은 중학교로 교육도 가고, 과외도 하고, 문화센터 수업도 해요. 끝까지 하니깐 이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이룰 수 있었네요. 코로나로 수강생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원은 유지비가 나가요. 번 돈을 유지비 내느라 다 쓰죠. 사실 과외 하면 돈은 벌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과외만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재단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좋아졌고 희망도 생겼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면 거기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이 다양화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일할 때나 아이들 가르칠 때 행복해요. 스케줄 없으면 제게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 있는 날은 행복해요. 일을 안 하면 늘어져요. 그래서 일을 해야 해요.

아이에게는 어떤 엄마일까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엄마로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이에게 좀 미안해요. 제가 일을 좋아해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귀가하면 “그냥 자라” 이러기도 하거든요. 나는 내 부모에게 애교가 거의 없는데, 우리 아이는 “엄마 사랑해요”라고 해요. 아이가 착해서 엄마가 일로 바쁜지 알고 자기가 알아서 피아노, 수학,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미안해요.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가사노동 말고도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해요. 나중에도 우리 딸에게 얘기해줄 거예요. ‘다른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해라. 중국 가면 한국어 선생님 하면

되고, 한국에서는 중국어 선생님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곤 해요.

장홍옌이라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학부모님들이 제가 열정이 있어서 성실하게 가르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단순히 쓰기,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방식을 고민해서 수업하는 좋은 선생님이로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학원을 차리고 싶어 하는 이주여성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해야 해요. 좋아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성공 못 해요. 무슨 일이 되었든 하나를 끝까지 하면 성공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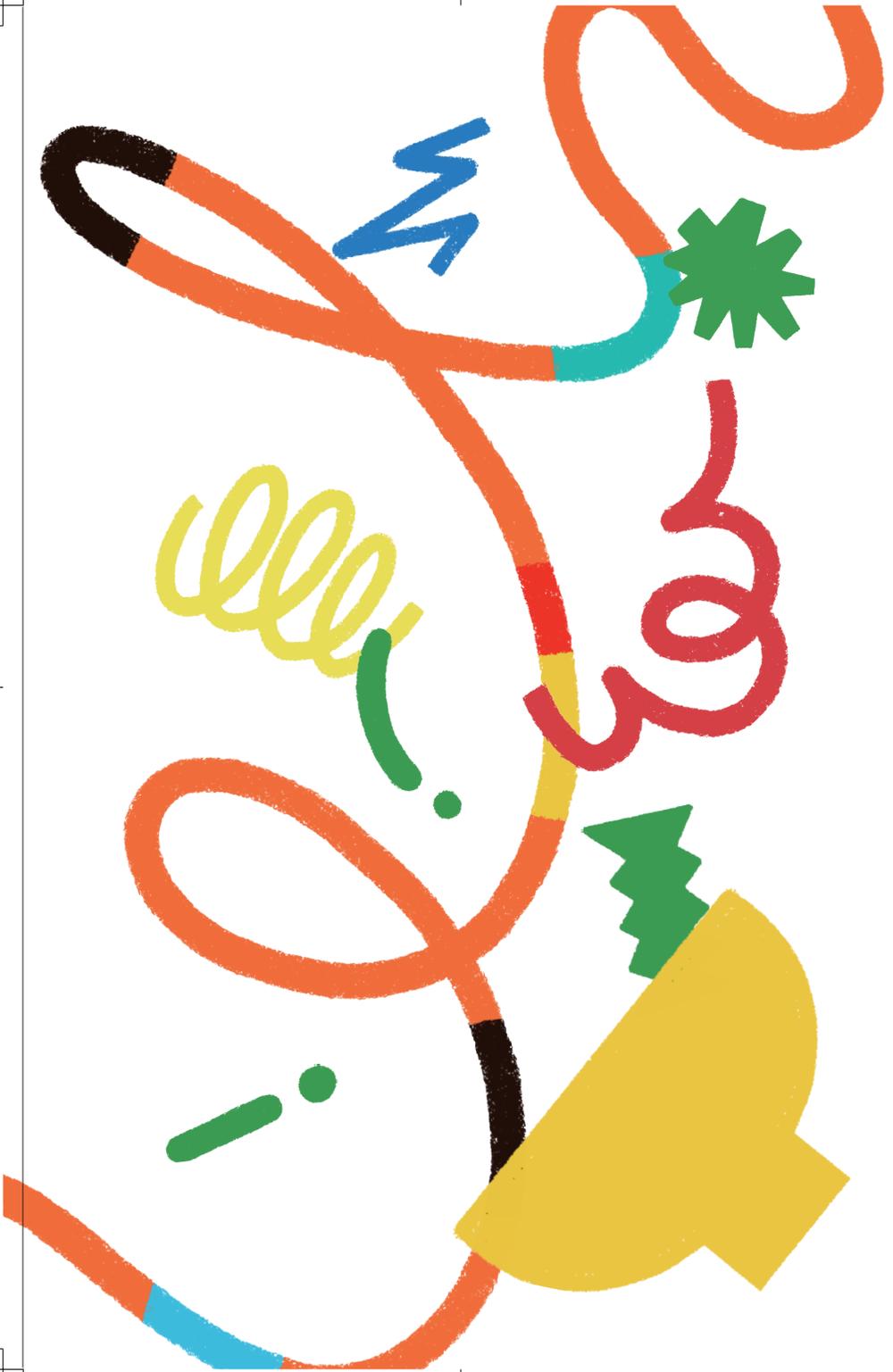
홍익중국어교습소

전통연

지원사업 소개



사업 소개
한국여성재단,
JP모간 소개



My Future, My Business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는 이주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회공헌사업으로 2015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JP모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지원대상이 아닌 적극적 역량강화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꿈꾸며, 이주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사업입니다.

My Future, My Business I, II, III 현황

I 2015 - 2017	STEP 1 창업 기본 교육 2015. 9. - 2015. 11.
	STEP 2 창업 컨설팅 2015. 12. - 2016. 2.
	STEP 3 창업 및 사후관리 2016. 3. - 2016. 6.
	STEP 4 추가 사후관리 2017. 3. - 2017. 6. 총 5개의 이주여성 협동조합 창업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창업 모델 개발 발판 마련
II 2018 - 2019	STEP 1 맞춤형 컨설팅 2018. 8. - 2018. 12.
	STEP 2 창업체 지속 운영 및 이주여성 역량 강화 지원 2018. 8. - 2019. 3.
	STEP 3 맞춤형 사후관리 2019. 1. - 2019. 3. 총 10개의 이주여성 창업체 지원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경영지원 특화모델로 발달
III 2020 - 2021	STEP 1 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2021. 3. - 2021. 7.
	STEP 2 1:1 멘토링 및 이주여성 역량 강화 교육 지원 2021. 7. - 2021. 12.
	STEP 3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2021. 9. - 2021. 12. 총 15개의 이주여성 창업체 지원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모델로 확장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III 세부내용

01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상의 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 개인 또는 팀 총 15개 업체 (개인: 12개 업체 / 팀: 3개 업체)
02 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 전국· 업종 : 교육업, 미용업, 서비스업, 외식업 등
03 지원 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12월
04 선정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 (지원 적합성 및 긴급성 여부 확인)· 현장심사 (1:1 인터뷰 와 심층 분석을 통한 최종 업체 선정)· 최종 선정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참여 업체의 지원사업 공감대 형성 및 동기 부여)
05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통합적 경영 현황 분석· 체계적 지원 및 트레이닝 (현물·현금 지원, 세무·회계/고객관리/온라인홍보·마케팅 교육, 1:1 멘토링)을 통한 솔루션 제공· 업체별 온라인 채널 등록 및 활용 지원을 통한 디지털 역량강화· 1:1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한 업체의 지속가능 운영 방안 마련
06 사회적 임팩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 창업체의 지속가능 경영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 이주여성의 자존감 향상 및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책임감 강화·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부정적 인식의 전환 및 긍정적 인식 제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이주여성 소상공인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해소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III 사업 성과

변화 항목 (KPI)	컨설팅 전	목표	컨설팅 이후	증감율	달성율
매출액 증대 (20% 증가)	2020년 월평균 매출액 474만원	20%증가 568만원	현재 월평균 매출액 971만원	104.9%	100%
순수익 증대 (20% 증가)	2020년 월평균 순수익액 41만원	20% 증가 49만원	현재 월평균 순수익액 96만원	134.2%	100%
참여자 가구소득증대 (15% 증가)	월 가구소득 164만원	15% 증가 189만원	월 가구소득 283만원	72.9%	100%
온라인채널 입점/활용 (1건이상)	온라인 활동 미 실행	입점/활용	온라인채널 입점/활용	90%	90%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개별과제 미 실행	개별 과제 실행	마케팅 개별과제 실행	90%	90%

*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기준(2021. 12.)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III 참여업체 소개

No.	출신국	업체명	업종	지역
1	베트남	미스포	일반음식점업 (쌀국수)	강원 홍천군
2	중국	원어민해법 중국어학원	교육서비스업 (중국어)	충남 홍성군
3	중국	연변양꼬치	일반음식점업 (중식)	강원 홍천군
4	중국	금화헤어샵	서비스업 (미용실)	충남 홍성군
5	몽골	다이아몬드 뷰티헤어	서비스업 (미용실, 피부미용)	경남 통영시
6	중국	젤라또 팩토리	서비스업 (아이스크림)	서울특별시
7	베트남	윤하헤어샵	서비스업 (일반미용, 잡화)	경기 여주시
8	중국	한사랑컬처	교육서비스업 (다문화체험학습)	서울특별시
9	중국	시골손두부의 하루	일반음식점업 (한식)	대전광역시
10	중국	아이스미(美) 피부관리샵	서비스업 (피부미용)	대전광역시
11	라이 베리아	아프리카	도매 및 소매업 (마트, 무역)	경기 안산시
12	중국	홍옌 중국어교습소	교육서비스업 (중국어)	대전광역시
13	몽골	헬동조합 글로벌에듀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	인천광역시
14	홍콩	큰나무 사천취귀양꼬치	일반음식점업 (중식)	대전광역시
15	몽골	다모의료앤 문화관광협동조합	서비스업 (교육, 공연문화)	경기 성남시

젤라또 팩토리

서비스업 (아이스크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1

한사랑결쳐

교육서비스업 (다문화체험학습)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9길 39

협동조합 글로벌에듀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8-1

윤하헤어샵

서비스업 (일반미용, 잡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4번길 24-1

미스포

일반음식점업 (쌀국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탐바위1길 65

연변양꼬치

일반음식점업 (중식)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7길 8

다모의로엔문화관광협동조합

서비스업 (교육, 공연문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88번길 7

아프리카

도매 및 소매업 (마트, 무역)
경기도 평택시 국제로 116

금화헤어샵

서비스업 (미용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3번길 39

원어민해법중국어학원

교육서비스업 (중국어)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36번길 25-1

시골손두부의 하루

일반음식점업 (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74번길 17

아이스미(美)피부관리샵

서비스업 (피부미용)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7

큰나무사천취귀양꼬치

일반음식점업 (중식)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49번길 15
홍엔중국어교습소

교육서비스업 (중국어)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65 황실코아 410호

다이아몬드뷰티헤어

서비스업 (미용실, 피부미용)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8길 34 동성테크빌 2층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III 참여업체 영상 보기

<p>금화헤어샵</p> 	 <h2>Geumhwa's Hair Shop</h2> <p>금화헤어샵</p> <p>Program Supported by J.P.Morgan</p> <p>진금화입니다. owner of Geumhwa's Hair Shop in Hongseong.</p> 
<p>다모의로앤 문화관광 협동조합</p> 	 <h2>DAMO Meditour & Culture</h2> <p>다모의로앤문화관광 협동조합</p> <p>Program Supported by J.P.Morgan</p> <p>저는 다모의로앤문화관광협동조합 (이전 다모의동조합) 대표 이라입니다. My name is Lee Ra and I'm the president of DAMO Meditour & Culture.</p> 
<p>원어민 해법 중국어학원</p> 	 <h2>Native Solution Chinese Language School</h2> <p>원어민해법중국어학원</p> <p>Program Supported by J.P.Morgan</p> <p>리준지아입니다. I run the Native Solution Chinese Language School in Hongseong.</p> 

윤하헤어샵



젤라또
팩토리



협동조합
글로벌에듀



한국여성재단 소개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JP모간 소개

1967년에 설립된 한국JP모간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국의 고객들께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JP모간은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에 인수합병 자문, 주식 및 채권 인수, 리서치, 주식 위탁매매, 선물옵션 위탁매매, 파생상품 및 외환거래, 글로벌 기업금융, 금융거래 및 증권결제 그리고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JP모간의 모든 사업부문은 전 세계 금융 허브인 뉴욕, 런던 및 홍콩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JP모간은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자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은 물론,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My Future, My Business

이주여성 소상공인의 일과 삶

발행일

2022년 1월 00일

발행처

한국여성재단

후원처

J.P. Morgan

기획

김다은

인터뷰어

김다은, 복금희

교정, 교열

이경희

녹취

정유희

디자인

일상의실천

인쇄

퍼스트 경일

한국여성재단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이메일

womenfund@womenfund.or.kr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 이 책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인용 시 저작자와 출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 이 책은 <2020-2021 이주여성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III >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